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Member FDIC
새해 금융 목표,
뱅크오브호프와 설계하세요!
2024

중앙일보

"최고"
Greenway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융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76호 Thursday, February 8, 2024 A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며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몰카 공작에 당한 건 맞지만 매정하게 못 끊은 건 아쉬워"

윤 대통령 특별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첫 언급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단호하게 처신

제2부속실 검토…도움될지는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00분간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명품백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대담은 지난 4일 녹화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시계에 몰카까지 달고 와서 이런 걸 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생) 1년이 지나서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운 의도적 접근과 불법 촬영 공작임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일(명품백 수수)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면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품백 논란에 "아쉽다"고는 했지만 "죄송하다" "잘못했다" 등의 사과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담 직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갈등을 빚은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 비대위원장 취임 무렵 통화를 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지휘·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고, 본인(한 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용산 참모 출신의 출마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 관계기사 14,15면

트럼프 안나온 네바다 공화당 경선

'지지 후보 없음' 이 무려 63%

트럼프 인기 증명, 헤일리 31% 득표

도널드 트럼프 니키 헤일리

6일 네바다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89.3%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당내 유력 경쟁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 이은 2연속 승리다.

이날 네바다주 공화당 프라이머리도 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의 맞대결은 불발됐다.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선 '지지 후보 없음'이 62.9%로 가장 많았고 헤일리 전 주지사는 30.8%에 그쳤다. 8일 예정된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공화당은 8일 코커스 결과로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을 할당키로 한 만큼 트럼프의 '독식'이 예약된 셈이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오는 24일 치르는 프라이머리에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최근 여론조사 36개를 종합해 평균치를 낸 결과 헤일리 전 주지사 지지율(30.3%)은 트럼프 전 대통령(61.2%)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헤일리 전 주지사는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며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다. 그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는 차기 대선보다 2028년 차차기 대선을 겨냥해 '포스트 트럼프'의 위상을 굳히려는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세금 보고 국세청 사칭 주의보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납세자들이 관련 사기 범죄 예방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및 중재 비영리 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가 국세청(IRS)을 사칭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 등 세금 보고 관련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CBS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주요 사기 유형에는 타인의 소셜 번호를 사용해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세금 신원도용 사기를 비롯해 이메일 피싱, IRS 직원 사칭, 가짜 세무 대리인 등이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금 관련 사기 피해 규모가 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BB의 스티브 버나스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든 사기꾼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올해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기꾼들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 가짜 편지 등을 이용해 납세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 2면 '사칭' 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손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닫은 자리
5500 SF, 랜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식당 닫은 자리
4500 SF
차이나 타운 부근

식당 닫은 자리
7800 SF
워싱턴 디씨
버지니아 에쉬번

식당 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상 가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태권도장 자리
2700 SF
버지니아 폴스처치

태권도장 자리
2900 SF
버지니아 에쉬번

사 무 실
고급 사무실 자리 랜트
타이슨스 코너
겔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 24시간, 8300 SF.

창 고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 랜트
9000 SF, 버지니아 헌든

주 택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메트로 근처, 웨그맨옆
차고1개 있습니다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 투자 컨설팅 | 주재원 랜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 사 업 체 |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한동훈, 대선도전 묻자 "총선 이후 내 인생 꼬이지 않겠나"

한 비대위원장, 관훈토론회 참석
"검사독재 있다면 이재명 지금 감옥"
"김건희 여사에 저열한 몰카 공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월 10일(총선) 이후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선 정말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총선)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느냐. 이기든, 지든"이라고 말했다.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대선 도전 의향을 묻자 내놓은 대답이다. 그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 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목련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의 사랑을, 선택받기를 고대한다"며 "총선까지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면서 "이기면 안 떠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의 길을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라고 꼽았다. 그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끼워 넣는다거나, 총선 이후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등의 '사(邪)'가 들어갔을 때 선거는 망한다"며 "저는 그런 공천을 하지 않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준비된 대표다.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질문은 정치 분야에 집중됐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론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면서도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전후 과정에서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건희 리스크' 대책도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했다.

최근 '검사 독재'를 청산 과제로 꼽은 것에 대해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해서도 그는 "이 대표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아직 1심 단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관련 질의응답도 오갔다. 한 위원장은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 문제에 관해선 "북한이 붕괴한 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영토와 주민을 점령하는 걸 우리가 허용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우리 영토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검사 독재'를 청산 과제로 꼽은 것에 대해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임혁백 '문 정부 책임론'에 친명·친문 갈등격화

〈민주당 공관위원장〉

임 "윤 정권 탄생원인 제공자 책임을"
친문 "동의안해" 반발… 친명은 옹호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임혁백(사진)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당내 친명-친문 계파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6일 4·10 총선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노형욱 후보가 공천 배제됐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친문계의 용퇴를 압박했다.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7일 "통합과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반면에 친명계는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선거에 나서고 있다"며 임 위원장을 거들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 간담회에선 부패 혐의에 연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언행을 신중히 하던 과거 공관위원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를 놓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관위원장이 이 대표 코드만 맞추는 거 아니냐"(민주당 수도권 의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권 관계자는 "의도가 어떻든 임 위원장 발언은 특정 계파에 유리하고, 다른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무(無)계파적인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통합을 이루겠다'(1월 24일)는 다짐을 자신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국희 기자

이메일·문자·SNS 통해 접근

» 1면 '사칭'에서 이어집니다

BBB는 세금 보고 관련 사기 피해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들이 범행에 나서기 전에 세금 보고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IRS 웹사이트(irs.gov/identity-theft-fraud-scams/get-an-identity-protection-pin)에서 6자리 숫자로 된 신원보호(IP) PIN을 발급받을 것을 권장했다.

이 밖에도 IRS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을 통해 PIN이나 비밀번호, 소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꾼들이 IRS 웹사이트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펼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IRS 웹사이트인지, 보안 연결(https://)이 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 정보 무단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된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납세자 신원 도용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IRS(800-908-4490)에 신고하고 연방거래통신위원회(ftc.gov/complaint)에도 불만 접수를 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워싱턴 날씨 (°F)

2월 8일(목) 55~39

9일(금)	63~47		12일(월)	47~40	
10일(토)	59~51		13일(화)	45~32	
11일(일)	59~43		14일(수)	51~34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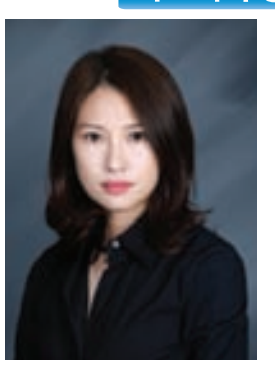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 703-318-0067)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비대위 체제 MD한인회, "새 회장 후보 나서나"

안수화 이사장 출마 의지 밝혀

〈메릴랜드 시민협회〉

차기 회장 출마자가 없어 3인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돼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파행을 겪고 있는 메릴랜드 한인회(비대위원장 헬렌 원 전 회장)에 안수화 메릴랜드 시민협회 이사장이 출마 의지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수화 이사장은 7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출마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51년 역사를 지닌 한인회의 회장자리가 공석인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면서 "한인회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후세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1세들의 수고와 노력의 역사로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다음세대의 터전을 마련하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주인공인 2세들이 한인사회의 중요

안수화

김영후

성과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되는 삶을 살아가며 코리언어메리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이사장은 수석 부회장으로 1.5세이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웹사이트 이노베이터 김영후 대표를 수석부회장으로 발탁해 다음세대 영입으로 한층 젊어진 역동성 있는 한인회의 방향을 예고했다.

김영후 대표는 "한국콘텐츠를 활용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배 세대들과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한인회 구축이 목표"라면서 "안 이사장님을 보좌해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 단체와의 협력을 이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안 이사장은 예정돼있던 한국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하며 귀국 후 후보등록을 위한 서류 및 공탁금제출 뜻을 밝혔다. 안수화 이사장은 현재 전국시민연맹(LOKA-USA)과 메릴랜드 한인교회협의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100세 시대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진행하는 "100세 시대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한 경제 세미나가 오는 13일(화)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온라인 줌(Zoom)으로 열린다.

세미나는 20년 이상 재정, 보험 및 은퇴 설계 경혐을 갖춘 고인호(사진) 공인재정설계사가 강사로 나서 은퇴자들이 경험한 노후 대비 과정에서의 실수담을 바탕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법과 고갈되지 않는 은퇴자금 준비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공식 지정한 주택 교육 및 상담기관으로 첫주택 구매자 프로그램, 정부 보조 아파트 및 시니어 아파트 관련 안내, 상담 및 신청 작업을 돕고 있다. 또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신용관리, 은퇴 준비, 주택 구매와 대출 등에 대한 재정 전문인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무료 재정클리닉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 세미나를 한인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등록 링크: https://bit.ly/retire022024 김윤미 기자

MD 몽고메리카운티 설날 기념식 열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마크 얼릭 이그제큐티브와 앤드루 프리드슨 카운티 의회의장이 한국고유명절 설을 알리고 축하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을 비롯 아시아계 단체장들에게 선언문이 전달됐다. 또한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대표해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5구역 시의원 크리스틴 밍크가 참석해 설날을 기념했다. 사진에서 한인 MD지역 단체장들이 선언문을 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가계 부채 17조5000억불, 사상 최고

크레딧카드 및 자동차 대출(오토론)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NN은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가계 부채 및 신용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4분기 가계 부채가 17조 5000억 달러로 이전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3개월 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크레딧카드 부채도 500억 달러나 늘어나 총 1조 13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할러데이 시즌 지출로 통상 4분기 부채가 증가하지만, 온라인 지출 증가, 신차 및 중고차 비용 급증, 소비자들의 견고한 지출 등으로 부채가 급증했다고 CNN은 분석했다.

뉴욕 연은의 경제 연구 자문인 윌버트 반 데르 클라우는 "크레딧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다"며 "특히 젊은층과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지난 4분기 크레딧카드 연체율은 8.52%, 자동차 대출은 7.69%로 각각 2011년 2분기와 201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크레딧카드와 오토론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기지 연체율이 팬데믹 때 재융자 붐으로 페이먼트가 줄면서 연체율이 높지 않은 편인 데다 학자금 대출도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렌딩트리 수석 신용분석가 매트 슐츠는 "고금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체율 상승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상 연초에 지출을 줄이고 크레딧카드 부채를 갚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

퇴사자 1/4은 아무런 통보없이 사라져

비매너 퇴사도 늘어

과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매너 없는 퇴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언어 학습 사이트 '프리플라이'가 최근 1천여명의 풀타임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는 퇴사자의 76%가 상사나 고용주를 직접 대면한다고 밝힌 반면, 23%는 이메일, 10%는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사직의사를 전할 때 프로패셔널한 자세를 취하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부는 퇴사시 직장 상사에게 면전에서 욕설을 하거나 이메일로 부적절한 용어를 일부러 선택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2%는 퇴사시 화를 내고, 12%는 수동적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6%는 빈정대는 자세를 취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퇴사자의 1/4은 사직서 제출 등 상례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아무 통보없이 직장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점점더 캐주얼한 직장문화가 확산되면서 비공식적이라고 여겨지던 퇴사문화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매니저가 퇴사자를 인터뷰하는 절차는 '엑시트 인터뷰'의 경우에도 매니저의 72%가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김옥채 기자

부고

심임순 여사 소천

워싱턴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심대식 목사의 누님이신 심임순(Sandie Shim) 여사가 지난 1월30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유가족으로는 심대식 목사와 심혜선, 찬주, 희주 씨 등이 있다. 고인을 위한 장례예배는 오는 10일(토) 오후 6시 워싱턴 소망교회(10501 Braddock Road #7A-B Fairfax, VA 22032)에서 엄수된다. ▷문의: 202-271-2726

MATCHINGPOINT |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VA/MD/DC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

인터뷰 미셸 레밴더 CHJ 디렉터

중앙일보·USC, 한인사회 보건 이슈 공동 심층취재

정신건강 등 커뮤니티 이슈 알리는 역할
복지 향상·정책 변화 유도하는 효과 기대

창간 50주년을 맞은 중앙일보와 USC가 공동으로 한인사회 정신건강 등 보건복지 이슈를 심층취재하는 '힐링 캘리포니아(Healing Californa)'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힐링 캘리포니아는 USC 헬스저널리즘센터(CHJ)가 중앙일보 등 8개 소수계 언론(중국계 커뮤니티 월드저널, 북가주 아시안 커뮤니티 아시안 아메리칸 뉴스, 흑인 커뮤니티 블랙보이스뉴스와 새크라멘토 옵저버, 라틴계 커뮤니티 유니비전 LA·새크라멘토·유니비전 베이)과 처음 시도하는 '에스닉 미디어 보건복지 보도 협력 프로젝트'다.

USC 헬스저널리즘센터 미셸 레밴더(사진) 디렉터는 "창간 50주년을 맞은 중앙일보와 힐링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 센터가 다양한 문화권의 언론과 협업해 각 커뮤니티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를 가주 전체 구성원 및 정책입안자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레밴더 디렉터는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프로젝트 이야기를 통해 여러 커뮤니티의 보건복지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레밴더 디렉터와 일문일답.

-힐링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프로젝트는 한인, 중국계, 흑인, 라틴계 독자를 둔 여러 언론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주 보건복지에 관한 중요한 보도를 할 예정이다. 각 언론이 속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커뮤니티가 필요한 도움과 해결해야 할 방법을 고민하는 도전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여러 언론이 힘을 합쳐 가주 보건복지 문제를 조명하면 더 큰 변화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여러 언론의 심층보도를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 돕기를 희망한다. 또한 정책입안자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위한 더 나은 보건복지 정책 변화에 나서면 좋겠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바라는 점은?

"각 커뮤니티 언론 간의 정보교류와 완성도 높은 기사다. 이를 통해 우리가 봉사하는 한인·중국계·흑인·라틴계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짚어보고, 보건복지 분야 향상을 기대한다."

-중앙일보 등 8개 소수계 언론 참여와 각 커뮤니티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보건복지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소수계 언론분야 리더, 기자, 학자 등 24명 이상과 논의를 거쳤다. 그들 모두 특정 커뮤니티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주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언론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가주의 여러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언론을 선정했다. 열정 넘치고 헌신적이며 능력을 갖춘 기자들과 함께 일하게 돼 기대된다."

-중앙일보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한인 등 우리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앙일보의 반세기 역사를 알게 돼 기쁘다. 중앙일보는 LA 등 미전역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고 커뮤니티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처럼 정신건강 낙인 등 자주 논의하지 않는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 언론이 소외감을 느끼는 개인과 가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된다. 언론이 다루기 꺼리는 주제를 파고들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많은 도움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한류 베이스캠프 뉴욕 문화원 개관

6일 맨해튼 코리아타운 신청사(122 E. 32스트리트)에 들어선 뉴욕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첫 선을 보였다. 인근 코리아타운에서 도보 20분 거리의 청사를 통해 한국문화 홍보의 베이스캠프로 재도약을 꾀한다.

앞서 문화원은 2009년 본래 주차장으로 쓰이던 6370스퀘어피트의 부지를 1580만 달러에 매입, 2012년 새 청사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뉴욕시 빌딩국(DOB)의 허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협조,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팬데믹 공사 중단으로 지지부진한 세월을 보냈다. 통유리와 곡선 등 한국미를 살린 단청구조 설계 탓에 선뜻 맡겠다고 나선 시공사가 없던 탓이다. 현재 신청사의 1층 천장은 도자기 등 한국적인 미에서 영감을 받은 세라믹 구조 등 복잡한 설계로 꾸려져 있다.

뉴욕한국문화원 입구와 입구 안쪽 로비 1층에 설치된 화려한 LED월이 보인다.

지난해 취임한 김천수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인 맨해튼 건물양식과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한국인의 의지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다만 아직 공사 중인 부분이 상당수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한 1층 안마당 LED월, 지하 1층 극장, 3층 도서실, 4층 부엌을 제외하고는 아직 공사 및 청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심혈을 기울인 곳은 지하 1층이다. 4m x 7.5m의 스크린, 다채로운 조명을 준비했다. 196석 규모로, 최대 25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성은 문화원 실무관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술이 들어갔다"며 "일반에 공개하는 게 목적이므로 언제든지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일부 담당 실무관들도 작동법을 배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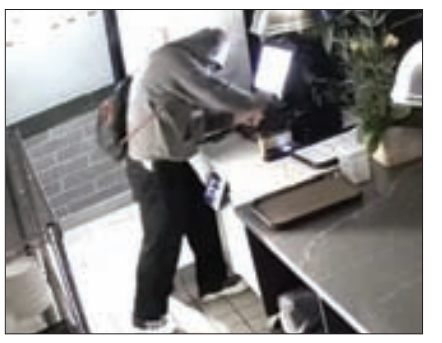
글·사진=강민혜 기자

또 한식당에 절도범 3000달러 훔쳐가

"이젠 저녁에도 문을 잠그지 않을까 합니다."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한식집에 5일 오전 5시 쯤 절도범이 침입해 총 3000달러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해당 식당 업주 K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에 업소 현관문 알람이 울려 곧바로 경비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이미 계산대 현금함이 사라진 뒤였다. 업주가 공개한 업소 내 카메라 영상을 보면 범인은 업소 외부에 있는 열쇠박스를 15분 동안 부순 후 열쇠를 손에 쥐고 유유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곧바로 계산대로 향한 범인은 계산대 현금박스를 뾰족한 도구로 열어보려다 여의치 않자 아예 현금 박스를 통채로 뜯어 도주했다.



회색 후디 셔츠를 입은 범인이 업소 내 진입 후 박스를 통채로 들고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였다.

업주는 범인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업소 내부 정보를 잘 파악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주는 "애초에 오작동이 많아 알람은 직접 확인한 후에 경찰을 부르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며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고 차라리 현금 통을 비우고 문을 열어 놓는 것이 기물 파손을 막는 길인가 싶다"며 허탈해했다.

최인성 기자

수퍼보울팀 비밀병기는 한인 신부의 기도

샌프란 49ers 스티브 김 채플린
11일 수퍼보울에 팀진출 화제
8년째 선수들 영적 버팀목 역할
"김 신부 도움있었기에 결승행"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채플린 스티브 김 신부가 팀 로고와 신앙적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다. [스티브 김 신부 제공·내셔널가톨릭레지스터]

한인 가톨릭 신부가 프로풋볼(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San Francisco 49ers)의 영적 버팀목이 되고 있어 화제다.

특히 포티나이너스는 이번 주말 열리는 NFL 결승전인 제58회 수퍼보울에 진출해 주목받고 있다. 수퍼보울은 평균 시청자수 1억1300만명에 달하는 프로스포츠 최대 축제다.

6일 가톨릭 전문 매체 내셔널가톨릭레지스터는 8년째 포티나이너스의 가톨릭 채플린으로 활동 중인 스티브 김(37) 신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포티나이너스의 열렬한 팬인 김 신부는 홈경기 전날 팀 내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고해성사는 물론 미사를 집전한다"며 "또한 상담과 기도를 통해 선수,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신부는 현재 북가주 지역 세인트조셉노트르담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그는 미사에서 늘 선수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김 신부는 "수백만 명이 TV로 풋볼을 시청하는데 경기에서 선수들이 욕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또한 예수만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북가주 토박이다. 한국에서 여섯 살 때 가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왔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그는 팔로알토 고등학교와 샌타클라라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원래 꿈은 운동선수였다. 그만큼 활동적이고 승리욕도 강했다.

김 신부는 "여느 아시안 가정처럼 부모님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이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프로 골퍼가 되고 싶었다"며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기로 했고 지난 2011년 사제 서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포티나이너스팀 내에서 김 신부의 역할은 독보적이다.

포티나이너스의 미겔레벨스 부코치는 "수퍼보울을 앞두고 지난 며칠간 너무 긴장됐는데 김 신부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다"며 "우리 팀이 수퍼보울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김 신부의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팀의 스티브 리서 부사장은 "김 신부는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와 대화하는 것은 마치 친구와 말하는 것 같다"며 "팀원 모두가 김 신부와 친하고, 그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팀의 기쁨이자 행운"이라고 전했다.

올해 수퍼보울에서는 포티나이너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맞붙는다. 두 팀은 수퍼보울 트로피인 '빈스 롬바디'를 놓고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인다. 지난 2020년 수퍼보울에서는 치프스가 31대20으로 포티나이너스를 꺾었다.

김 신부는 "지난번에는 치프스가 이겼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길 차례"라며 "이번 경기에서 포티나이너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는 수퍼보울에서 다섯 차례 우승한 명문 팀이다. 반면, 치프스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수퍼보울에 2년 연속 진출한 강팀이다.

이번 58회 수퍼보울은 11일 오후 3시30분(서부 시간)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장열 기자

일부 대학만 등록일 연장
FAFSA 오류 학생들 혼란

새로 수정된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의 데이터 오류로 대학 지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최근 2024-25학년도용 FAFSA에 입력한 대입 지원자들의 재정 데이터가 3월 말까지 대학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대학이 산정하는 학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FAFSA 양식의 학생 및 가족 소득 계산 방법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올가을 입학생들이 학자금 정보 부족으로 대학 선택을 적시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에게 5월 1일까지 입학할 대학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FAFSA 결과를 받은 대학들이 재정지원 패키지를 보내려면 최소 2~3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4월 말까지 최종 재정지원 패키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제인 김(18·부에나파크) 양은 "원하는 대학 3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재정 지원 패키지는 아직 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입학할 곳을 선택해야 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답답해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인 학생은 "사립대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데 기숙사비까지 포함하면 연 학비가 수만 달러에 달해서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지원금이 필수다. 재정 지원 정보 없이는 어느 대학교에 갈 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현재 오리건주립대 등 일부 대학만 FAFSA의 재정 지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학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등록 마감일을 연장한 상태다.

한편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새 FAFSA 관련 오류 및 지연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새 FAFSA 관련 문제들로 연방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GAO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장연화 기자

혼다 에어백 결함 75만대 리콜

에어백 안전 이슈로 혼다 및 아큐라의 승용차, SUV, 밴 등 75만여대가 리콜된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혼다가 일부 자사 차량의 조수석 센서 결함으로 충돌 시 의도치 않게 에어백이 팽창해 체구가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해당 부품 교체를 위해 75만114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NHTSA가 5일 공개한 리콜 문서에 따르면 조수석의 무게 센서가 깨지거나 단락돼 에어백이 의도대로 제어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되는 16개 모델은 혼다의 2020~2022년형 파일럿(사진), 어코드, 시빅 세단, HR-V 및 오디세이, 2020년형 피트 및 시빅 쿠페, 2021~2022년형 시빅 해치백, 2021년형 시빅 타입 R 및 인사이트, 2020~2021년형 CR-V, CR-V 하이브리드, 패스포트, 리지라인 및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아큐라의 2020년형과 2022년형 MDX, 2020~2022년형 RDX, 2020~2021년형 TLX 등이다.

혼다는 리콜 차량의 결함 센서를 각 딜러에서 무료로 교체해 주며 내달 18일부터 리콜 차량 소유주들에게 서면 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혼다 리콜 번호는 XHP, VHQ며 문의는 전화(888-234-2138)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Inc NMLS #201332
410-370-4229/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NC
혜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Greenway FUNDING GROUP, INC.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H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I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828; NC L-161472; VA MC-5777; DE 030649; TX ; PA 101075; WV ML-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www.nmlsconsumeracces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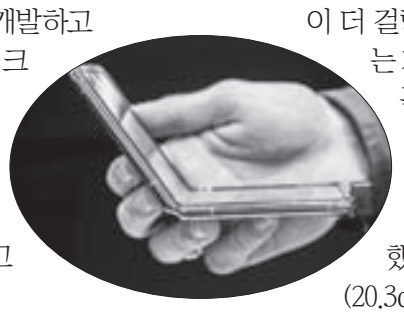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조 몰) 훼밀리노래방
Pine Orchard Ln. 40 300m
영아패션
뉴타운홈
미락조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애플, 결국 삼성폰 따라가나
IT전문매체 "접는 아이폰 개발중"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과 같은 '접는'(foldable) 아이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조개처럼 열리고 닫히는 '클램셸(clamshell·조개껍데기)' 모양의 접는 아이폰 시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애플은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크기의 접는 아이폰 부품 조달과 관련해 아시아에 있는 1개 이상의 제조사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기기 외부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현재 아이폰만큼 얇은 '접는' 아이폰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작은 배터리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2월 '접는' 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아이폰 등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접는' 방식을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에 먼저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매체는 '접는' 아이폰에 대한 애플의 대량 생산 계획이 올해와 내년에는 없다고 밝혔다. 빨라야 2026년에나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2019년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이다. '접는' 아이폰 공개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이 '접는' 아이패드에 대한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더 인포메이션은 전했다. 애플은 8인치(20.3㎝) 디스플레이 크기와 아이패드 미니와 거의 같은 크기의 접는 태블릿을 개발 중이다.

애플은 접는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 가운데에 나타나는 주름을 줄이고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최대한 평평하게 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접는' 아이패드 출시 일정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접는' 아이폰보다 먼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총장 "세계, 혼돈의 시대 진입"

"안보리 개혁해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려는 것과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7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혼돈의 시대(age of chaos)에 진입했다며 현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의 개혁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신년 업무설명 연설을 하며 이처럼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내가 사무총장이 된 이래 보지 못한 규모와 속도로 가자지구를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나는 특히 이스라엘군이 다음 목표로 라파를 정조준하려 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그곳은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모여든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만 명이 밀집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의 이런 군사행동은 이미 인도주의적 악몽에 놓인 가자지구 상황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고 지역에 전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가 다극화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마저 기능이 마비되면서 세계가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냉전 시대에는 잘 확립된 메커니즘이 강대국 간 관계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 다극화 시대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사라지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 혼란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안보리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욱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아프리카 대륙에 상임이사국이 한 나라도 없는 현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안보리 개혁을 촉구했다.

푸틴, '친트럼프' 앵커 터커 칼슨과 인터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보수 매체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했다고 크렘린궁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전날 모스크바에서 칼슨과 인터뷰를 마쳤다고 확인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이 서방 언론인과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칼슨은 7년간 폭스뉴스의 대표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을 진행한 인기 앵커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한 극우 성향 논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측)과 터커 칼슨(우측)

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작년 4월 폭스뉴스를 나온 뒤 자신의 이름을 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칼슨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인터뷰를 위해 러시아에 왔다"고 알렸다.

타스 통신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해 인터뷰가 8일 방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영국 국왕, 암 진단 후 첫 포착
미국서 날아온 해리 왕자 만났다

찰스 영국 국왕이 6일(현지시간) 암 진단 후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이날 런던 거처인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차남 해리 왕자를 만난 뒤 카밀라 왕비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찰스 국왕은 현재 기거 중인 샌드링엄 왕실 영지로 이동하기 전 해리 왕자를 만나 약 45분간 시간을 보냈다.

해리 왕자는 전날 아버지의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캘리포니아 집에서 출발해 이날 낮 영국에 도착했다. 부인과 두 아이는 동반하지 않았다.

BBC는 해리 왕자가 영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온 속도가 의미심장해 보인다고 논평했다.

또 해리 왕자가 왕실과 빚었던 갈등은 그와 국왕 사이가 아니라 그의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의 갈등이었으며, 타블로이드 언론의 과잉 보도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BBC는 아울러 해리 왕자가 이번 방문 중에 윌리엄 왕세자를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6일(현지시간)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차를 타고 클래런스 하우스를 떠나고 있다.

한편 왕실은 찰스 국왕이 지난달 런던의 한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다가 암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왕실은 전립선암은 아니라고 확인했지만, 암의 종류나 단계, 치료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리시수낵 총리는 앞서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행히 국왕의 암이 조기에 발견됐다"며 "국왕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중국 해커, 최소 5년간 미 인프라 잠입

"유사시 미국 혼란 야기 태세"

중국 해커들이 최소 5년간 수도와 전기 등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잠입해왔고, 미중 갈등 상황 시 미국 본토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7일 미국을 포함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당국은 조만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의 활동은 알려지기 훨씬 이전인 최소 5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IT(정보기술) 시스템에 우선 접근을 시도한 뒤 이후 수개월 동안 전력 및 수도 등 핵심 기간 시스템으로 침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은 냉난방 및 수도 시스템을 조사해 왔고, 유사시 이들 시스템을 조작해 기간 시설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들은 일부 핵심 시설의 보안 카메라도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교통 및 에너지, 물 저장 시설 컴퓨터에도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해커들이 침입한 시설들은 미국 본토는 물론 괌을 비롯해 미주 대륙이 아닌 곳에 있는 미국의 영토에까지 분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이제까지 침투한 해커들이 미국의 인프라 시설에 혼란을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태세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대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중 갈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 공작이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미국 사회에 침투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북한 등이 배후 세력인 해킹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특히 미국에선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사시 중국과 연관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사회 혼란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고조하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중국군 산하 해킹 부대가 20곳이 넘는 미국의 전기·수도 등 핵심 인프라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31일 하원 중국 특위 청문회에서 "중국 해커들은 '공격할 때가 왔다'고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 미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실제 피해를 줄 준비를 하며 미국 인프라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부 고

고 심임순 (Sandie Shim)님께서
지난 1월 30일 향년 77세에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장례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

▶일 시 : 2024년 2월 10일 (토) 오후 6시
▶장 소 : 워싱턴 소망교회
10501 Braddock Road, #7A-B
Fairfax, VA 22032

유가족

(동생) 심대식
심혜선
심찬주
심희주

연락처 : 심대식 202-271-2726

물가안정 46탄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FEB. 8th - FEB. 15th, 2024

와제의 냉동김밥

sunlit

김밥(불고기/김치제육/야채)

KIMBAP (BULGOGI / KIMCHI SPICY BULGOGI / VEGETABLE)

K-푸드 최고의 인기 맛템!

인기 먹거리~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드디어 판매개시!

미국에서 대박난~ 둘둘 말은 김밥!

2 EA(8.1OZ) FOR $5.00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Centreville, VA	Chantilly, VA	Annandale, VA	Ashburn, VA	Herndon, VA	Ellicott City, MD	Catonsville, MD	Rockville, MD	Gaithersburg, MD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65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490 Elden Street Herndon, VA 20170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미 고금리 후폭풍… 지역은행 주가 일주일새 12.6% 하락

〈KBW 지역은행 지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커져
NYCB 시가총액 6조원대 날아가
미국인 카드빚 1년새 14.5% 급증
연체율 6.36%로 12년 만에 최고

미국에서 고강도 긴축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금을 댄 지역은행 파산 위기로 번지는가 하면, 카드빚 연체율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따른 수익 악화를 알린 후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주가는 약 60% 하락했다. 6일에도 전날보다 22.2% 급락한 4.20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31일 37.6%, 이달 1일 11.1%, 5일 10.8%에 이어 최근 네 차례나 두 자릿수 대 급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약 45억 달러가 증발했다.

우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NYCB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정크)으로 강등한 영향이 컸다. 무디스는 NYCB의 손실과 자본금 감소 등을 이유로 장기등급을 'Baa3'에서 'Ba2'로 두 단계 강등했다. 전날 신용평가사 피치도 NYCB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부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다. 걱정된다"고 우려를 전한 것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NYCB 최고위험책임자(CRO)와 감사책임자가 최근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의혹도 제기된다. 일부 주주가 NYCB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을 숨겼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6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와 관련해 "관리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관건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익스포저(위험)가 어디까지 전이되느냐다. 미국증시 내 지역은행 주가를 추종하는 KBW 지역은행 지수는 지난 6거래일간 12.6% 하락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중소형 은행이 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28.7%를 보유하고 있다. 해크만 웰스 파트너스의 러셀 해크만 창업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둡다는 증거가 많은 데다 최소한 오피스 시장의 경우 대중에 알려진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여전히 일부 중소형 은행의 문제일 뿐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관리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고물가에 카드빚에 의존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1조 12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5%(1430억 달러) 늘어났다. 신용카드 연체율(90일 이상 연체 전환 기준)은 6.36%로 1년 전보다 2.35%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 2분기(6.9%)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18~29세 청년층의 카드 연체율이 9.65%로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0.82%, 2.66%로 1년 전보다 각각 0.25%포인트, 0.44%포인트 올랐다.

뉴욕 연은의 윌버트 반 데어 클로우 경제연구 고문은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 전환이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정적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경희 기자

조코위의 'V 인사' 꼼수… 아들은 기호 2번 야당 부통령 후보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권자만 2억명' 인니 대선 D-6
조코위 지지율 80%, 3선 연임금지
장남 출마 위해 연령제한법 풀어
NYT "부통령 앉히려 야당과 거래"
조코위 목표는 5년 뒤 아들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두고 암묵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왼쪽 사진). 유세중인 야당 대선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왼쪽)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보이는 부통령 후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바로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다. [AFP=연합뉴스]

대선이 채 일주일도 안 남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소속당(투쟁민주당) 대신 야당(그린드라당) 대선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선거 기호(2번)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는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조코위의 장남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헌법상 3선이 불가능한 조코위 대통령이 프라보워와 장남을 내세워 사실상 '정치 왕조' 구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임기 말에도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이런 조코위의 암묵적 지지를 받는 프라보워 장관은 지지율 53%로 대선 후보 3명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유권자가 2억500만 명(전체 인구의 72%)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대선은 오는 14일 열린다. 같은 날 총선도 함께 진행된다. 포린폴리시 등은 이 선거를 두고 "하루에 치르는 선거론 유권자가 세계 최다"라고 소개했다. 인구 대국 인도의 총선(4~5월) 유권자(9억 명)가 인도네시아보다 많지만, 인도는 투표가 40일 동안 나눠 진행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로 인도·미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다. 지난 대선·총선 투표율이 80% 이상일 만큼 투표 참여도 활발하다. 인도네시아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로 불리는 이유다. 그러나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이번 대선으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엔 조코위 대통령이 있다. 한때 그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렸다.

오랜 기간 군부 독재에 시달렸던 인도네시아는 2004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조코위는 2014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직선제를 통한 최초의 정권 교체였다. 무명 정치인에서 일약 대통령이 된 조코위는 친서민·개혁적 행보를 통해 한때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권력 연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36세였던 기브란은 선거법상 연령 제한(40세 이상)에 걸려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수라카르타 시장이자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의 출마가 가능하게 했다. 당시 헌재 소장이 조코위의 매제였다.

임선영 기자

소니·토요타 손잡고 공장 또 신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일본에 공장을 또 짓는다. 이달 내 문을 여는 구마모토현 제1 공장에 없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까지 추가해서다. 이로써 TSMC는 해외에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얻고,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제조국의 영광을 되찾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TSMC는 6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고 구마모토현에 두 번째 공장을 짓기 위해 TSMC의 일본 자회사 JASM(일본 첨단반도체제조사)에 52억62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JASM은 TSMC가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소니(지분율 6%), 덴소(5.5%)와 함께 설립한 회사인데, 이번에 토요타(2%)까지 합류했다.

제2 공장은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TSMC는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해 일본 남부 구마모토에 제2 공장을 짓는다"며 "생산 규모 증가로 JASM의 전반적인 비용 구조와 공급망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저렴한 인건비도 매력이다. JASM은 지난해 125명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대졸 사원들에게 28만엔(약 268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일본에선 반도체 공장의 완공이 줄이어 예정돼 있다.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미에현에 투자한 낸드플래시 공장이 오는 3분기에 양산을 시작한다. 미국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D램 공장도 올해 말 양산이 목표다. 토요타·소니·키옥시아 등 8개사가 합작해 세운 라피더스의 홋카이도 공장도 2027년 2나노 칩 양산이 목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이 커질수록 한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일본 구마모토 TSMC 반도체 공장

TSMC의 일본 진출

자료: TSMC, 업계 취합

1공장 (이달 개소식)	-구마모토현 위치 -12인치 웨이퍼 12, 16, 22, 28나노 공정 기반 -월5만5000장 생산예정
2공장 (연내 착공)	-구마모토현 위치 -6나노 공정 추가 -월 5만장 이상 생산 예정 -1·2공장 합쳐 총 3400명 고용 예상
3공장 (예정)	-오사카 혹은 구마모토 등 추정 -3나노 공정 예상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과립)

소화효소 $10 할인 ~2/29 까지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ANNANDALE •웰빙모아 (703)256·5500 •건강마을 (703)354·1515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CENTREVILLE •웰빙모아 (703)830·7755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ELLICOTT CITY •롯데플라자 (410)750·9656 •모드니에 (410)615·6167 •힐링타운(443)878·9020 ■CATONSVILLE •BESETO (410)303·5530 ■GAITHERSBURG •GREEN COSMETIC (301)926·6307

"USB 담긴 KF-21 자료 6600건"… 인니측 수년간 빼돌린 의혹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핵심 기술 '입체 도면' 포함 가능성
인니 기술자 USB에 다수 보고서
제3국에도 관련 정보 유출한 정황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건은 유출하려던 자료가 기밀인지 여부인데, 특히 설계도면과 같은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인도네시아 국적 A씨가 빼돌리려던 이동식 저장장치(USB) 가운데 암호가 걸려 있지 않은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해 판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검색대에서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닌 채 퇴근하다가 적발돼 현재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USB에 담긴 자료의 양이 6000건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USB의 자료 개수로 보면 분류 기준에 따라 적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6600건 정도가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규모가 사실이라면 KF-21의 주요 기술 상당수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A씨의 USB에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자료는 설계도면을 입체화한 것으로, KF-21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KAI가 T-50, FA-50 등을 만들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KF-21 '카티아'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며 "KAI의 고유 지식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카티아'가 확보되면 단기간에 KF-21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조사단은 A씨가 수년에 걸쳐 KF-21 기술 자료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USB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오랜 기간 본국을 포함 제3자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정황증거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15명 안팎의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진 중 리더 격인 A씨는 2017년 KAI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2월 경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막바지 조립 중인 한국형 전투기(KF-21) 시제기 모습. [사진 방위사업청]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을 받지 못한 자료가 포함돼 있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사업에서 미국산 장비를 필요로 할 때 미국이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예 수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군 안팎에선 KAI의 허술한 보안체계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KAI는 지난 2일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의 합동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보안점검을 해 중요 기술이 군사기밀로 지정됐는지, 만약 군사기밀로 지정이 안 돼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 관계자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주북한 러시아 대사 "한·미 도발행위 계속 땐, 북 7차 핵실험 할 수도"

러시아는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물자 직접 지원을, 한국은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기술 이전을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엔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7일 이례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사진) 대사는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확장 억제 또는 북한을 향한 다른 도발적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또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북한 지도부가 자국의 방위력 추가 증강을 위해 신규(7차)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 "이런 국면 전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워싱턴에 있고, 서울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다만 한국의 책임은 덜하다"고 덧붙였다. 2014년 말부터 북한 대사로 근무해 온 그는 과거 서방을 향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채널 역할을 해왔다. 이번엔 한·러 간 힘겨루기 국면에서 러시아가 협상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까지 이용하는 모양새다.

앞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은 최근 방한해 한국 외교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면담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양국 관계가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대화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수월하게 이뤄지진 않는다"면서도 "이런 소통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소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과 관련해 마체고라 대사는 북·러가 상호 관광 활성화 등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 서명할 공동 문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방북 시기에 대해 "타이밍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

미국 "북극 외교, 한국과 긴밀 협의"

지난해 6월 미국은 노르웨이 북단의 소도시 트롬쇠에 외교공관을 만들고 영사를 파견했다. 1994년 냉전 종식과 함께 폐쇄했던 공관을 30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수도 오슬로에서 북쪽으로 1600㎞ 떨어진 인구 8만의 작은 도시에 외교공관을 만든 건, 북극이 신(新)냉전의 최전방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몇 년새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북극의 전략적 가치도 부상했다. 북극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 희귀 광물 등을 놓고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중국까지 '근(近) 북극 국가'를 자처하며 지분을 챙기는 중이다.

지난달 29일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열린 '북극 프런티어'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북극 프런티어는 노르웨이·캐나다·미국 등 북극 인접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의 총리·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연례 국제회의다. 한국에서는 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신형철 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극이사회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자유주의 진영의 단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북극이사회에는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러시아 인접 국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열린 북극 프론티어에 참석한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이 지난달 31일 북극해 어업 협정 등과 관련한 발표를 해 큰 관심을 모았다. [사진 극지연구소]

한국도 '북극 외교'의 장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한국과 함께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일본·중국 등 13개국)가 됐다. 한국은 2021년 '북극해 어업 협정'(CAOFA)에 참여하며 운신의 폭을 넓혔다. CAOFA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에서의 조업 활동을 최장 16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국제 협정이다.

북극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러시아·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한국·중국·일본·아이슬란드·유럽연합)이 뜻을 모았다. 백악관 북극정책 고문을 맡은 데이비드 발턴은 이번 북극 프런티어에 참석해 "북극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며 "한국의 쇄빙선 연구와 CAOFA 참여 등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

지난달 31일 신형철 소장은 북극 프런티어에서 CAOFA 체결 과정과 의의에 대해 발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는 "한국은 2022년 CAOFA 창립총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당사자국 총회를 개최했다"며 "비 북극권 국가인 한국의 북극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트롬쇠=홍지유 기자

J&B ESSAY CONSULTING, LLC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세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GREEN — Essays for Kids (Grades 5-8)
VIOLET — Boarding Admissions (Grade 8)
BLUE — Essay Contests (Grades 8-11)
ORANGE — Journals (Grades 9-11)
BROWN — HYPS Portfolios (Grades 10-11)
RED — College Admissions (Grade 12)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9시 30분 - 오후7시 ■일: 오전11시 - 오후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구정맞이 Special SALE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싸~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싸~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5 YEAR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팬텀2 랠리스2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PHANTOM Medical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특가 세일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KORE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선정
CES 혁신상 4년 연속 수상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퀵다이얼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묵신한 에어백
- 손지압 패드
- 강화된 안전센서
- 3단계 온열
- 자동 체형 인식
- 다리길이 자동 조절

지금껏 당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흙표흙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퀸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피맞출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챙기고 피로를 푸세요~

쉴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 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조규홍 "지역근무땐 주택도 지원, 이게 지역의사제보다 낫다"

〈선택형 계약의사제〉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파격 증원 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한데 키우려면 최소 10년, 지금 골든타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너무 시급하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중앙일보는 7일 저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인터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하루 종일 의대 증원 이슈에 매달렸고, 저녁에야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일문일답.

-2000명 증원 규모는 매우 파격적이다.

"의료계에서 350명 얘기가 나왔는데, 수급 전망을 토대로 한 게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직후 감소한 인원일 뿐이다. 의대 교육이 6년제이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수급 전망이 필요하다. 2035년에는 의사 인력의 수급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2031~2035년)뿐이다.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하지만 5년 동안 1만 명이라도 채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의대의 수요 조사를 근거로 했나.

"40개 의대 희망 수요의 최소치(2151명)다.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해 2000명 증원해도 교육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교육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보완하겠다. 1000명, 그 이하 900명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머릿속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10년 장기수급 전망을 토대로 했다."

-순차적으로 늘릴 수도 있지 않나.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늘려야 한다. 처음에 적게 시작하면 마지막 해에는 4000명, 5000명을 증원해야 할 수도 있다. 가능한지 모르겠다. 정원을 어떻게 65%나 늘리냐고 하는데, 1만 명은 지난해 말 기준 활동 의사(11만4699명)의 8.7%다."

-많이 늘린다고 소아과 등 필수 과로 갈까.

"필수의료 패키지(1일 발표)를 먼저 시행하고 정원을 늘리자는데,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 의사 배출에 6~10년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고, 부족한 걸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필수의료 완비가 먼저라는 주장 때문에 지난 19년간 아무것도 못 했다. 그걸 또 반복하라는 건가."

-의사 인력 대책을 못 세운 건 과거 정부들의 잘못 아닌가.

"의료개혁이란 게 첨예한 이해 갈등을 겪으며 진행한다. 정부의 중재와 조정, 결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과거 정부들이) 좀 방관했고,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누적됐다.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한다."

-의료계 설득 과정이 부족한 건 아닌가.

"2000년(의약분업 파업), 2020년(의대 정원 파업)보다 월등히 많이 설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계속 양자토론만 주장했다. 생각하는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협이 계속 거절했다. 이렇게 해서는 2025학년도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간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결정했다."

-정부도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에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계속 강조했다."

-5년간 증원 후에는 줄일 건가.

"주기적으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상황을 모니터링해 장기 수급에 맞춰 나가겠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가 지역에 오래 근무하려면 그 지역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현재 40%)로 올리는 걸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법으로 지역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데다 위헌 가능성도 있어 반발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해 오래 머물게 하는 선택형 계약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의대 졸업 후 지역에 남을까.

"공정하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면서 주택·교육 등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같이 제공할 방침이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프라를 깔고 학교를 짓듯 의사를 남게 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개업면허제는 언제 논의하나.

"수련 과정 없이 면허를 따고 임상 진료를 시작하는 나라가 없다. 의사 입장에서도 수련 기회를 확대하는 게 낫다고 본다. 가능한 한 빨리 하려 한다."

-공공 의대는 도입하지 않을 건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의무복무의 위헌성·실효성,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논란이 있었다. 당시 내세운 공공 의대 목적 상당 부분이 이미 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에 (재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 … "면허박탈"까지 거론

4년 전엔 10명 고발했다가 취하

"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원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이다. 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한다.

명령을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의료계가 공공 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을 당시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했다. 당시에는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명령을 병원 등에 게시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낼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복지부는 전날(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에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가능성은 작게 본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집단행동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본다. 사직서를 냈을 때 그 자체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에도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전면에서 이끌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법 제51조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사들 사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 의협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YTN, 유진기업 품으로 … 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유진이엔티(유진기업)의 YTN 인수안이 7일 정부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같은 달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위는 지난해 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5인 정원인 방통위는 현재 2명만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등을 포함해 총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도 명시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변경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서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UNITED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채용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적극 추천하는 여행!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1차 출발 3/26-4/5 (봄꽃특선)
2차 출발 4/16-4/26
3차 출발 6/18-6/28 (영어가이드)
4차 출발 9/17-9/27
5차 출발 10/15-10/25
6차 출발 10/22-11/1 (단풍특선)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투어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고향냄새 솔솔나는 먹거리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1차 노옵션 다낭 3박 + 고국 7박 — 5/18-5/29 $3090+항공
2차 일본 3박 + 고국 7박 — 5/21-6/1 $3590+항공
3차 노옵션 다낭 3박 + 고국 7박 — 11/9-11/20 $3090+항공
4차 일본 3박 + 고국 7박 — 11/12-11/23 $3590+항공

때론 부담없이
클래식 고국일주
10박 11일
$2290+항공

1차 출발 4/30-5/10
2차 출발 7/9-7/19
3차 출발 10/1-10/11

특전
1. 4성급 이상 호텔
2. 대형버스 투어
3. 고향냄새 솔솔나는 먹거리
*옵션 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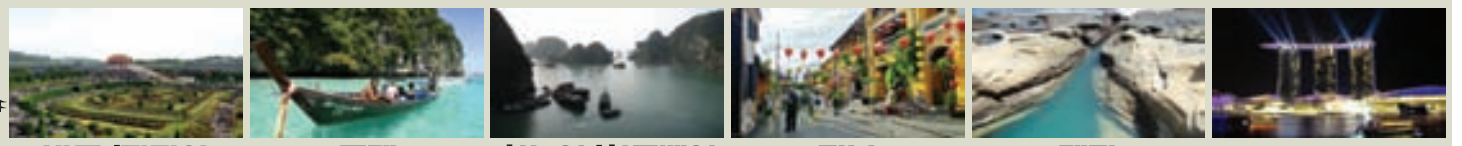
3월 26일 꽃들의 향연
고품격 전국일주가 시작됩니다.
3/26~4/5 $2990+항공

2024년 13회 자신있게 출발합니다!!!

TMCI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고국건강검진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세브란스 (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 (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 (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 3박 5일 $590+항공 — 출발: 격주 목요일 — 왓포사원, 콜로세옴쇼, 파타야 야시장,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바위공원, 태국특산물
푸켓 — 3박 5일 $599+항공 — 출발: 격주 수요일 — 팡아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쇼,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찰롱 사원 코끼리 트래킹
하노이/하롱베이 — 3박 5일 $590+항공 — 출발: 격주 수요일 — 하노이, 엔뜨,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다낭 — 3박 5일 $499+항공 — 출발: 격주 일요일 —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본내원교, 껀가사당, 풍흥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대만 — 3박 4일 $690+항공 — 출발: 격주 목요일 —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제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야류해양 국립공원, 쟈우펀거리
싱가폴 — 3박 5일 $790+항공 — 출발: 격주 수요일 —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원더스, 핸더스 웨이 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16~2/24 바하마 크루즈 8박9일 $1190(인사이드) 마감
3/13~3/19 남 프랑스 6박7일 $2890+항공
3/16~3/28 남미 일주 1차(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190+항공 마감
3/16~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2990+항공
3/22~3/28 페루 일주 6박7일 $2890+항공
3/25~3/31 봄방학특선 이태리일주 6박7일 $2390+항공
3/26~4/05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9~4/10 남미 일주 2차(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190+항공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1~6/22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3990+항공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6/25~7/0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28~7/03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17~9/27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9/17~9/30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9박 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4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시내산) $5190+항공
11/12~11/20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31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겨울골프&가족여행

캔쿤
4박5일 $1,590+항공 부터
5박6일 $1,890+항공 부터
6박7일 $2,290+항공 부터
*All Inclusive호텔

도미니카
3박4일 $1,290+항공 부터
4박5일 $1,390+항공 부터
5박6일 $1,590+항공 부터
*All Inclusive호텔

올랜도
3박4일 $995+항공 부터
4박5일 $1,290+항공 부터
5박6일 $1,590+항공 부터
*호텔 혹은 타운하우스 가능

코스타리카
3박4일 $1,099+항공 부터
4박5일 $1,199+항공 부터
5박6일 $1,399+항공 부터
*골프 안치는날 관광 가능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월출발
나이아가라/토론토/천섬 몬트리올/퀘백/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미동부 베스트셀러 월출발
뉴욕.브루클린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핵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 나이아가라 월출발
2박 3일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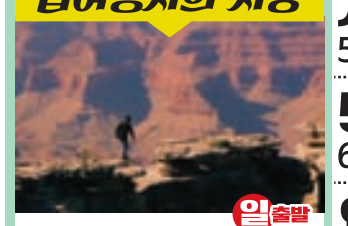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마운트버논 &
루레이동굴 $125 알렉산드리아 $150
필라델피아 $150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티켓구입 가능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일출발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록키 캘거리 출발 3박4일 $850+항공
옐로나이프 3박+록키 3박 $16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사과값'부터 꺼낸 윤 대통령 "생활물가·금리 부담 줄일 것"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의 특별대담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금리 문제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필품 같은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지금처럼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폭등한 과일값에 대해서도 "지금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며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高)금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확대 실행해 온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체제에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도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휴머니즘'과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근로자들 자산형성 하게 조세 규제 줄일 것
중대재해법, 중기에 시간 더 줘야

가정 가치 회복해야 출산율 올라
돌봄 확대 당연, 교사 보상도 강화
의대 증원… 의사 법적부담은 완화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심층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전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며 "중소기업 측에서 시간을 한 2년만 더 유예를 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세계 최상위 수준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는 "국가 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정면 돌파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로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미룰 수 없다"며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소송 리스크 감소, 비수도권 의료진 확충 등 의료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며 "소아과나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 진료과 의사를 지키고,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지 않도록 완결적인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개 식용에 반대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과 관련해 "국민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조언을 듣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강아지 6마리를 함께 키우며 나눠왔던 대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추진과 관련해 "돌봄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며 "안전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현관과 로비부터 ↗

"아버지 뜻 새기려" 집무실엔 50년된 책장

최초 공개된 윤 대통령 집무실

윤 대통령은 7일 KBS 특별대담에서 자신의 집무실을 처음 공개했다.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 문 앞엔 취임 당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가 내걸려 있었다.

집무실 책상 한가운데엔 지난해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적힌 명패가 놓였다. 윤 대통령은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50년 이상 사용한 책장도 집무실에 들여놨다. 책장엔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등 윤 명예교수가 집필한 저서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의 생각을 계속 새기고 일을 하기 위해 갖다 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린 복도 앞에서 '국민에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많이 아낀 대통령,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이런 인상을 가지셨으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라고 답했다.

이번 대담은 사전에 조율된 질문 없이 즉석에서 앵커가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2시간가량 녹화가 이뤄졌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100분에 걸쳐 방송됐다. 김기정 기자

정치 유튜버, 총선후보 불러 사상검증… "사실상 준공천심사"

공천 뒤흔드는 여야 정치유튜버

'100만 구독자' 막강한 영향력 바탕
당직자 "유튜버가 공천권 가진 느낌"

4·10 총선을 두 달 남겨두고 정치 유튜브 채널이 유사 공천심사위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채널이 친명계·친윤계 후보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띄우고, 동시에 적합도 여론조사나 공약 이행 평가, 면접 등 공천 심사와 다름없는 방송을 진행해서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여론조사꽃(대표 김어준)이 실시한 지역구별 가상 대결 조사(무선 전화면접 방식) 결과를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방송에선 전북 군산이 대상이었다. 전체 응답자에선 현역인 신영대 의원이 31.8%, 도전자인 김의겸(비례) 의원이 30.7%의 지지도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신 의원 37.2%, 김 의원 37.9%였다. 김씨는 민주당 지지층 조사를 콕 집어 "0.7%p 차이"라며 "초초초박빙이다. 적극 투표층에서 1.3%p로 김의겸이 앞서고, 이건 뭐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독자가 147만 명인 이 채널은 주로 비명계 의원 지역구의 여론 동향을 주목해 왔다. 이원욱·윤영찬·조응천·김종민·설훈 의원의 지역구가 타깃이었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결과를 공유하며 이들의 탈당을 압박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고정 출연해 진행을 보조한다. 한 당직자는 "친명 강성 지지층을 쥐고 흔들다 보니 김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지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지니스·챕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 ·챕터 11 ·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른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미 대선 상관없이 한·미동맹 강화…한·중, 철학 다르지 않아"

↘ 집무실을 직접 소개하고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들도 공개했다. 이어 물가와 금리, 의료개혁과 같은 민생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 외교 문제까지 국정 전반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 대통령실]

정치

↘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 관계는 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비대위원장 취임 무렵 통화를 했고, 저는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거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영수 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영수 회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된다"면서도 여지는 남겼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결심 사항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낮은 지지율로 인해 국민이 야속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국민이 제게 실망을 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총선 출사표를 던진 대통령실 참모 출신에게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혜는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되니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소야대 구도에 대해서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국정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 일에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야의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대상 피습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의 정치보다 증오의 정치, 공격의 정치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오지 않았나"며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거짓과 가짜·음해·공격의 기저에는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폭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지율? 국민들 덜 실망해줘 감사
출사표 낸 참모, 대통령실 후광 없어
영수회담, 여당 무시로 보일 수도

비이성적인 북한 전제로 안보 구축
남북정상회담, 보여주기식은 안돼
북 주민은 우리 국민, 탈북민 지원

외교·안보

윤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선(11월) 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한·미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올해 3국 정상회담은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중 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와 회담했는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하셨다"며 "한·중 간에 대외관계의 철학과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관리됐고, 교역관계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선언한 것에 대해 "일단 엄청나게 큰 변화"라면서도 "(북한이) 단일 민족이든, 두 개의 국가든 지난 70여 년 이상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적화시키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 "우리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정상회담을 할 수는 있지만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에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준비를 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탈북민을 배려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심새롬·김효성·손국희·이창훈 기자

회견 대신 대담…용산 "이슈 설명에 낫다"

여당 "사전녹화, 야당 공격 빌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KBS와 사전 녹화 방식의 대담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청사까지 옮겼다. 그러나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끝으로 14개월 넘도록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고 있다.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지난해 신년 인터뷰는 조선일보와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다수의 언론사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회견보다,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가 국정운영 방향이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이슈의 본질을 설명하기가 낫다고 주장한다.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도 언급된다. 마지막 도어스테핑 때 윤 대통령의 '바이든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간에 벌어진 충돌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뉴스를 보도하고도 아무런 사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은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며 "사전 녹화는 야당이 공격하기 딱 좋은 소재"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 씨가 온라인 공천심사위원장이란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구독자 50만 명의 '박시영TV'는 지난해부터 '위너프로젝트' 코너에 총선 도전자를 출연시켜 "이재명 대표를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을 던진다. '현역 의원 공약이행 평가' 시리즈를 방송하는 구독자 90만 명의 '새날'에도 친명계를 자처하는 전현희·최민희·김현·이정헌 등 예비후보가 출연했다. 구독자 63만 명의 '이동형TV'는 윤용조·김지호·모경종 등 이 대표 최측근을 등장시킨 뒤 "찐찐찐이야" 같은 제목을 붙였다. "유튜버가 사실상 친명 후보 홍보대행사"(수도권 재선 의원)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진영도 엇비슷하다. 구독자 100만 명의 '고성국TV'는 최근 '뉴페이스 토크배틀'이라는 코너에서 김도식·도태우·공정숙·조용술 등의 예비후보를 소개했다. 이 채널은 '현장대담'이라는 코너에서 예비후보 지역구나 출판행사 등을 찾아간다. 구독자 86만 명의 '이봉규TV'에는 김소연·조광한·유낙준·조상규 등 예비후보가, 구독자 126만 명의 '배승희변호사' 채널에도 호준석·박정훈·김성용·여명 등 예비후보가 출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정확한 판단과 탁월한 혜안을 갖고 일을 하셨다"(김성용)는 식의 노골적인 발언도 그대로 공개된다.

대형 유튜브 여러 곳에 출연하는 한 예비후보는 "실제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지역에서 '잘 봤다'는 피드백이 온다"며 "선거 90일 전부터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유튜브는 거의 유일한 홍보 창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정당 기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유튜브와 정당정치' 토론회 발제를 통해 "유튜브 정치·시사채널이 '유사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유튜버들은 정당이 아닌 리더에 복무하길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김어준씨가 여론조사를 하고, 박시영씨가 후보자에게 당대표에 대한 평가까지 (요구)하는 걸 보면 준(準)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3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개런티 이자
/단기 (3년, 5년, 7년)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 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3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우리말 바루기

'애시당초'는 없는 말

연초에는 많은 이가 새해 다짐을 한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제대로 지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결국 실패하면 이런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겠다. "애시당초 금연은 안 될 일이었어" "끼니를 거르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시당초 무리였다" 등처럼 자신의 의지가 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로 돌리기 일쑤다.

이럴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애시당초'다. 위에서처럼 일의 맨 처음을 나타낼 때 '애시당초'라는 말을 쓴다. '애시'와 '당초'가 만나 '애시당초'가 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이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애시'는 '애초'의 사투리이므로 '애초'라는 말을 써야 한다. '애시당초' 역시 '애당초'가 맞는 말이다. '애당초'는 '애시'와 '당초'가 아닌 접두사 '애-'와 '당초'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다. '당초(當初)'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을 나타내는 말로 "일이 당초의 생각과는 다르게 풀렸다" 등처럼 쓰인다. 이 '당초'에 '맨 처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애-'가 붙어 '애당초'가 됐다. 즉 접사 '애-'를 붙여 '당초'의 뜻을 한 번 더 강조한 말이 '애당초'다. '애당초'는 "그 일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끝까지 해낼 각오가 없으면 애당초 시작하지 마라" 등과 같이 사용된다. 줄여 '애초'로도 쓸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흥주 칼럼

알래스카 땅 내놓으라는 황당한 푸틴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세기 러시아 제국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것을 불법으로 선언하면서 알래스카를 다시 러시아 소유로 되돌리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3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미국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그는 알래스카를 결 코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지난 19일 "러시아는 소련과 러시아 제국의 재산을 포함하여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재산을 찾아 등록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자금을 할당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국 해외재산부에 배정되었다"고 보도했다.

'더힐'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운데 발표된 이 법령에서 알래스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러시아내 군 관련 블로거들은 푸틴이 이 법령을 근거로 1867년 러시아가 알래스카 영토를 미국에 매각한 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명령을 접한 러시아 내 극우 민족주의 블로거들은 한때 러시아가 지배했던 알래스카와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지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잃어버린 옛 러시아·소련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푸틴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 등 러시아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의 밑바탕에 깔린 핵심 기조로 평가된다. 사실 러시아가 미국에 뇌물을 주면서 까지 고작 750만 달러에 팔아 치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당시의 750만 달러를 현재 시세로 환산한다 해도 17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러한 세기적 매각을 성사시킨 이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였다.

그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매각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접근해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매입 당시 미국내에서는 동토의 땅을 쓸데없이 사들였다고 국민적 반발이 일 정도였다.

반면 미국은 알래스카 땅이 비록 동토의 땅이기는 하지만 지하에 엄청난 자원이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었다.

만약 영국이 알래스카를 점령한 후 캐나다와 손을 잡고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매각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하원에서 반대 여론이 강해지자 속이 탄 러시아가

미국의 의회의원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매각안을 빨리 승인해 주기를 바랄 정도였다.

결국 미국 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1868년 7월, 미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러시아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알래스카를 미국 품에 안게 되었다. 그 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알래스카 땅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석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다양한 지하자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수 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치운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

미·소 냉전 시대에 돌입하면서 알래스카가 러시아의 목에 비수를 대는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적 가치는 러시아에게 치명타를 안겨주게 된다.

러시아 내부에서 알래스카를 다시 러시아의 소유로 돌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미국은 한마디로 코웃음을 쳤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매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이없다는 듯 "푸틴이 알래스카 매각이 불법이라는 뭔가에 서명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쟁연구소(ISW)는 "무엇이 현재 또는 역사적 러시아 재산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크렘린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밖 국가에서 자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재산의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구소련 및 주변 국가에 혼란을 조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러시아의 알래스카 땅에 대한 소유권 회복 주장은 사실상 망상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푸틴 정신 상태로 보면, 또 그렇게 주장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푸틴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자 마당

95세의 삶

우리 부부는 고령에도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또 아들에 이어 손자도 치과의사가 되었고, 증손자를 만나는 기쁨을 주신 것에도 감사했다. 몸의 움직임이 자유스럽지 못한 아내가 하루 세끼를 꼬박 챙겨준 것도 감사할 일이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했던가. 이런 감사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응급실을 거쳐 양로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회복이 어려워 존엄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나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다.

돌이켜 보면 아내와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다. 특히 아내와 함께했던 이민생활 40여 년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리커스토어, 마켓도 운영했고, 친구의 원단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했었다.

우리 부부는 고생스러웠지만 잘 성장해 가는 아이들이 큰 보람이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이제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 부부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전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한 자손들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은퇴 후에는 미국의 유명 관광지를 두루 여행했고, 한국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90세 생일에는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사예배에 많은 지인을 초대해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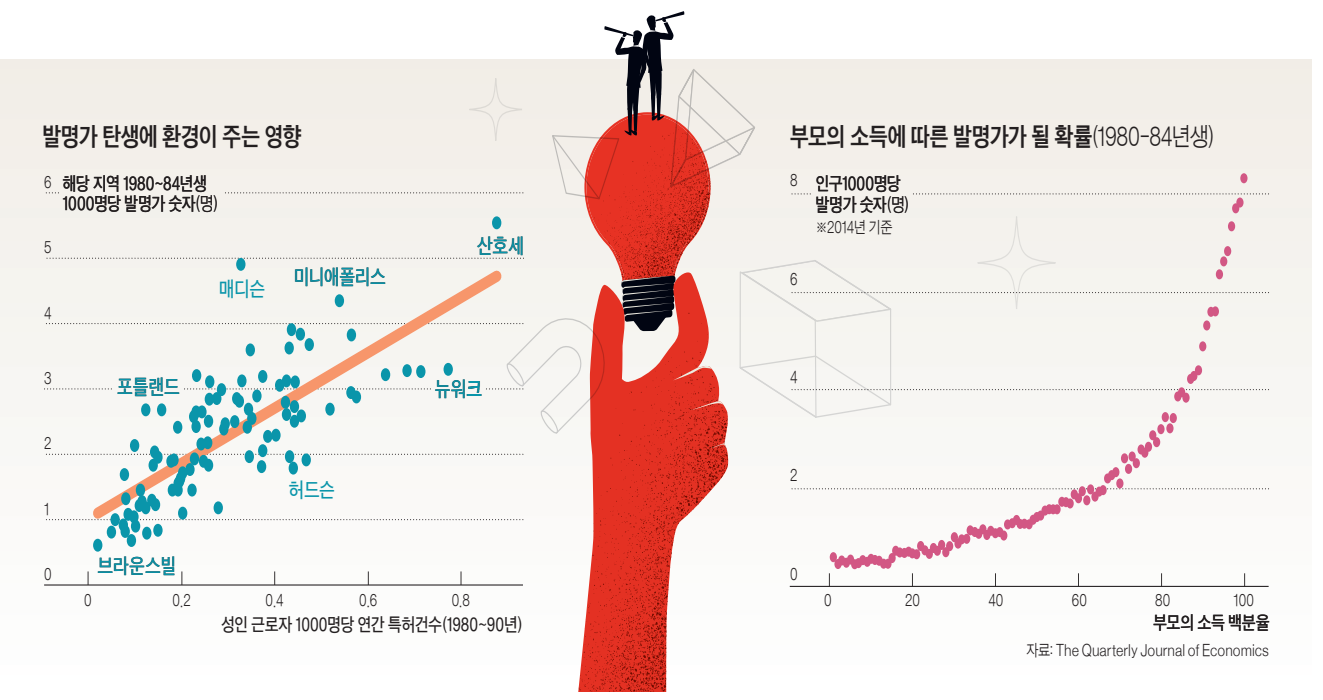
하지만 인명은 재천이라 했던가. 아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가 먼저 떠나야지" 했던 소망이 허사가 되었다. 인생사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먼저 간 아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세상에서 못다 한 정과 사랑, 하늘나라에서 만나 마음껏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이승원·요바린다

질문하라, 비판하라 '똑똑한 문제아'가 사회 발전시킨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질문을 두려워하지도 고분고분하지도 않은 좀 유별난 학생이었다. 학교의 비합리적 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권위에 맞서지 못하게 몽둥이가 날라왔다. 오랜만에 만난 중·고교 동창들은 학창시절을 '야만의 시대'로 회고했다. 의과대학 실습생 시절엔 교수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레지던트에게 불려가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경제학과 대학원에선 세미나 발표 내용의 허점을 집요하게 따지고 들었는데, 발표자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도 불편해했다.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학문의 전당에서도 예의 바른 질문만이 허용됐다.



해외에서 느낀 한국의 교육 문화

그런데 미국에 경제학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나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질문 세례는 미덕이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아시아권 학생들은 여전히 교수의 학문적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침묵했다. 교수들은 그런 나를 "한국 학생 같지 않다"며 칭찬했고 내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었다.

한국 학생 같지 않다니 무슨 말인가? 미국 교수가 되고 나니,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비교적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동아시아권(한·중·일)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잘 풀고, 연구 조교로는 누구보다 성실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이를 넘어서는 창의력이 중요한데, 한국 학생들은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사과정 선배였던 한 저명한 미국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그의 유명 대학 박사과정 동료 중엔 한국이 낳은 천재가 있었다. 시험 성적이 모든 과목에서 압도적인 일등이었다. 그동안 이 대학은 박사 종합시험의 성적을 합격/불합격으로만 기록했는데, 이 분 때문에 '뛰어난 합격(High Pass)'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을 정도였다.

문제는 본격적인 박사 논문 작성과정에서 발생했다. 본인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아야 하는데 이 한국인 천재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문제를 찾지 못했다. 결국 "나는 연구에 적합한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선언하며 박사과정을 그만두었다. 이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에서 비판적 사고에 관한 국가적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등 시민의 일상의 삶에 깊숙이 개입했다. 자율성이 침해될 때 합리적 시민은 그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한지 되묻기보다는, 정부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늦게 마스크를 벗었고,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학교 문을 닫았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규칙 깨는 문제아가 혁신 이끌어

경제학자들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주목한다. 창의성은 측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다. 반면 혁신은 특허의 질과 양으로 측정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은 창업의 질과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 창의성이 혁신이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적 기업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 발전에 핵심인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버클리대와 런던정경대의 경제학자들은 똑똑한 문제아(Smart and Illicit)가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가(주식회사의 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크게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Levine and Rubinstein, 2016). 어린 시절 소위 문제아로 불리는 공격적이고, 위험 감수적이며, 혼란스럽고, 규칙을 깨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기까지 하다면 혁신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좋은 자존감도 혁신가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체제 순응적 모범생을 길러내고 있다. 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인 코넬대에서 8년, 아시아 정상권 학교인 홍콩 과기대에서 4년째 교편을 잡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 유럽, 남미, 한·중·일 등 동아시아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나라의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을 가르쳤다. 전세계 다양한 교육 제도가 낳은 가장 뛰어난 대학생들을 비교해 볼 기회가 많았던 셈이다.

나는 수업에서 경제학이 검증하고 축적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수업에 비판적으로 임해야 한다. 내가 가르친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토론한다. 더 나아가 본인 국가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유럽, 남미 출신이 동아시아 한·중·일 출신 학생보다 일반적으로 더 적극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생각도 잘한다. 교수의 권위에 맹종하는 경우도 드물다.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만 교수와 개인적으로 친해질 만한 사회성을 갖춘 아시아 학생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물론 동아시아 출신 학생이 시험은 더 잘 본다.

국제학교를 졸업한 동아시아 출신은 흥미로운 집단이다.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살지만 서구식 교육을 받은 이들은 중간자적 특징을 가졌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학생들의 침묵에는 교육과 문화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중국이 혁신 못 하는 이유

세계은행에서 올해 출간될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는 중진국의 경제발전을 다룬다.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국을 거쳐 홍콩을 방문한 세계은행팀을 만났다. 이들은 모방(imitation)에서 크게 성공한 중국 경제가 왜 다음 단계인 혁신(innovation)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교육제도와 권위주의적 사회였다. 중국 교육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자 극한 경쟁의 대명사다. 여기에 더해 중국인들은 권위적인 정부를 비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고가 경직되고 창의력이 싹틀 공간이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혁신적 성장에 모든 국민이 창의적일 필요까지는 없으니 창의적 엘리트를 기르는 것을 논의했다.

최근 하버드대 라즈 체티(Raj Chetty) 교수팀은 혁신적 발명가 120만명의 삶을 추적했다(Bell et al, 2019). 지난 수십년의 특허 자료, 국세청 및 뉴욕시 교육청 자료를 통합한 대형 프로젝트다. 혁신가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서 태어났다. 소득수준 하위 50% 이하의 가정에서 발명가는 1000명 중 1명 미만이나, 상위 1%는 그 확률이 10배도 넘었다. 성별 격차도 상당했다. 발명가의 82%는 남성이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격차가 타고난 능력 차이보다는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이 더 크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시절 수학 시험 점수가 비슷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가정 형편에 따라 발명가가 될 확률에 큰 차이가 났다. 어린 시절 특정 분야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동네·가족에서 자라면 그 분야의 발명가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 이는 혁신의 자질이 롤모델 또는 인턴십 등 통한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창시절 혁신에 노출되었다면 중요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이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의 힘으로는 꽃피울 수 없었던 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 사회에 이바지하게 돕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는 혁신 창업의 위험 줄여야

국가는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혁신적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프랑스는 2002년 창업 실패 시에 최소 2~3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창업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연간 9000~2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Hombert et al, 2020).

혁신을 위한 연구비 사용도 개선하자. 연구비는 대개 프로젝트에 기반한 단발성 과제에 주어진다. 평가 주기도 짧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편이다. 미국의 비영리 의료 연구 기관인 하워드 휴즈 연구소는 프로젝트가 아닌 '연구자'의 미래를 보고 연구비를 수여했다. 최소 5~10년 동안 자유롭게 연구하고, 중간에 실패하면 다른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게 도왔다. 그 결과 비슷한 액수의 연구비를 받은 다른 연구자에 비해 훨씬 큰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Azoulay et al. 2011).

권위에 대한 복종, 강요된 침묵, 남 눈치나 보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식의 대한민국 사회의 운용 법칙을 이제 끝을 내자.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꽃피우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존중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조용히 약자를 도울 때 혁신이 가속화된다.

문제아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질문하라. 비판하라. 외쳐라. 이것이 이 사회를 변혁하고 국가를 발전시킨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의사

◈**김현철**=의사이자 경제학자.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로 활동하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코넬대 정책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다. 사회실험, 자연실험, 빅데이터를 통해 보건·교육·노동·돌봄 및 복지 정책을 연구한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비키 리 부동산인가? 왜 악착같은 부동산인가?
1 17년 경력의 주택 관리 능력과 16년 연속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탑에이전트,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갖춘 브로커, 비키 리 입니다.
2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법,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혹은 각 카운티 별 준수해야하는 부동산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펫 디파짓: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Non refundable pet deposit 은 불법입니다.
예) 브로커가 아닌 에이전트가 임대주택관리 해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예) 디파짓은 2개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스모크디텍터: 각방마다 각 층마다. 지하실과 주방 이산화탄소 &amp: 스모크디텍터 설치
3 고객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며 계약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의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비키 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요!!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사설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김 여사 억울한 사연 강조하다 사과·반성 표현 빠져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등 제도적 보완장치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4일 녹화)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런 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유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2부속실은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선친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접근해 와 김 여사가 매정하게 끊지 못했던 게 문제였고 아쉬웠던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이후 두 달 넘게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입장을 표시한 건 만시지탄이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신의 공약을 번복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해명이 대체로 솔직하긴 했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엔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 명확한 표현으로 유감과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여사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더 비중을 두는 듯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김 여사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도 부정적 민심을 고려하면 사과와 반성을 앞세우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또 현재 논란의 백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도 없었다. 경호실의 허술한 보안 관리 문제도 언급이 빠졌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추가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긋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권 갈등의 불씨로 떠오른 '윤심 공천'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특혜는 기대하지도 말고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겠으나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필수·지역의료 로드맵 가다듬어야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화함으로써 필수·지역의료 붕괴 현상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왜곡된 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해법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늘어난 의사가 필수 분야와 지역의료 쪽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세밀한 로드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도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기에 앞서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수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필수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대기·당직 시간 등을 고려한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은 중증 응급실과 소아·산부인과 정도만 예시로 들었을 뿐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는 지금부터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기피 분야 지원책만큼이나 쏠림 완화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당초 발표에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개원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보완하고 보톡스와 필러 등 일부 미용 성형 분야는 간호사 등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며칠 만에 미용 성형 분야 문호 개방은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한발씩 후퇴하면 결국 의사들 보상만 늘리고 정작 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가 우려스럽다. 아울러 비급여 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급여 치료비가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역의료는 더 걱정이다. 정부는 지역 의대에서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는 단순 인센티브로 과연 지역에 의사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배제된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료 특별전형 등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 급한 불은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를 정하는 일이다. 필수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담당할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더 많이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곳들은 교육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자칫 정원만 늘리고 방치하면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또 학부뿐 아니라 수련의 배정 체계도 6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예상을 넘어선 대폭 증원이 발표되면서 의대가 이공계의 인재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증원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단기적 수요 증가를 막긴 어렵다. 그러나 공학과 기초과학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해, 의대 아닌 진로를 정해도 불안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간이다.

정치에 직무유기 책임을 묻자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기업 반대에도 중대재해법 확대
개혁신당 고질병 대책 적극 제시
시대적 과제 해법 찾는 정치 돼야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의 '한국은 소멸하고 있나' 칼럼은 0.7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중세 흑사병'과 비교해 충격을 줬다. 칼럼에서 가장 섬뜩했던 대목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 경고였다.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내용이었다. 2022년 현재 한국군 병력은 50만여 명, 북한군은 128만여 명이다. 우리 병력은 2014년만 해도 63만여 명이었다. 8년 새 13만 명이 줄었다. 인구 감소는 예정된 미래다.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운다고 해도 국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의 핵심 대책은 무기와 장비의 첨단화다. 그러나 전쟁은 결국 군인이 한다. 드론과 인공지능(AI)이 잔뜩 동원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병력이 승패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위기가 오는 걸 보면서도 대비하지 않고 정쟁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도 그래서 맞았다. 한국에 신뢰를 잃은 국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도 여야는 금융개혁법 처리를 기피했다. 대통령 선거 때 노동계 표를 의식해서였다.

그래서 이준석의 개혁신당 정강정책의 문제의식이 반갑다. 우리 사회의 '회색 코뿔소' 같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려면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병역을 마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물론 찬반 논란이 뜨거울 사안이다. 그렇더라도 병력자원 급감은 현실이고,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준석은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맞다. 그것이 정치의 도리다.

개혁신당의 1호 정책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다. '10년 이상 방송 경력'의 자격 조항도 있다. 방송의 편파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을 위해 '내 편'을 사장으로 내리꽂는 구태만큼은 청산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집권의 전리품이 돼선 안 된다. 낙하산 사장이 앉은 그 방송을 상대 진영 다수 국민은 불신하고, 방송사 내부에선 진흙탕 진영 싸움이 벌어진다. 언제까지 이런 악습의 반복을 봐야 하는가.

개혁신당 정책 중에는 정치권 행사에 기업 총수들이 무분별 동원되는 것을 막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 추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및 지원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도 있다. 시쳇말로 참 신박한 발상 아닌가. 되기만 하면 나라 모습을 보다 선진국답게 만들 수 있다.

기성 정치의 효용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발로 한계에 달한 느낌이다. 많은 산업현장이 열악하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각성과 안전조치가 긴요하다. 2022년에만 재해 사망자가 644명이었는데, 60.2%(388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문제는 현장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느냐다. 적용 대상 소규모 사업장은 83만여 개, 근로자가 800만 명이다. 한 조사에선 94%가 준비가 덜 됐다고 답했다. 많은 사업주가 처벌의 공포에 떨고 있다. 사장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중소 사업장 현실이다. 안타까운 근로자 죽음을 막자는 것이 법 취지지만, 폐업과 해고의 날벼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법 제정 후 3년간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그렇다면 야당(민주당)은 역대 최강의 의회 권력을 쥐고서 무엇을 했나. 대비를 소홀히 해 온 집권세력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고 유예를 거부한 야당, 양쪽 모두 직무유기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쫓겨난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침 총선이 다가온다. 책임 묻기에 딱 좋은 기회다.

수석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 HomeAdvice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town
THE TASTIEST IN TOWN

FEB. 8th - FEB. 15th, 2024

Sliced Rice Cakes
케이타운 떡국떡
2.2 LB

2$4 FOR

그 집 만두
The house mandu

FEB. 8th - FEB. 15th, 2024

Dumpling
그 집 만두
왕교자
ALL VARIETIES
20–24 OZ

2$9.99 FOR

MUST BUY 2

Encore Sale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액티브 시니어 겨냥 실버타운 살아볼까

55세 이상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는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화두다. 아마 이 리스트 순위에는 한국행이나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 은퇴 후 꼭 살고 싶었던 지역 등이 물망에 오를 수 있겠다. 또 거주 중인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 여윳돈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은퇴 커뮤니티를 고려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시니어 커뮤니티가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고급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최근 의료, 레크리에이션, 요리, 청소, 컨시어지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실버타운 신축이 붐이다. 은퇴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다

최근 실버타운은 호화시설보다는 카페나 다이닝룸 등 액티브 시니어들의 니즈를 반영한 부대시설이 인기다. 사진은 워싱턴주 소재 한 실버타운 주택 거실 전경. [tehaleh.com 캡처]

대형 개발업체 44% 신축 타운 착공
호화 시설보다 카페, 산책로 등 인기

▶베이비부머 은퇴 현황

연방센서스국에 의하면 2020년 미국 인구 중 5600만 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미국 인구 6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그리고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75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데이터 제공업체이며 비영리단체인 USA팩트(USAFacts)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가구의 46%는 어떤 퇴직 예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가구의 25% 조금 넘는 수가 10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50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가구는 9%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은퇴 전엔 막연하게나마 은퇴 후 기후 좋은 휴양지나 유람선 장기 여행, 이동식 주택 등 다양한 은퇴지를 꿈꿔 보지만 막상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통장 잔고에 가로막혀 실현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은퇴자금 부족에 맞닥뜨린 상당수 은퇴자들은 기존 주택을 매매해 작은 집으로 이사해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은퇴 커뮤니티 인기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여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수영장, 스파, 골프 코스를 갖춘 럭셔리 커뮤니티부터 중산층 은퇴자를 위한 소박한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가격 불문 이곳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기대하는 것은 비슷한 연령대와 함께 어울리며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커뮤니티 입주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일부 인기 커뮤니티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입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 원하는 커뮤니티 성격과 가격을 설명하고 현재 매물로 나온 리스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만약 신축 커뮤니티 입주를 원한다면 임대 사무실에 연락해 모델하우스 투어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은퇴 커뮤니티 신축 붐

전국 건축개발업자를 위한 간행물인 빌더 온라인(builderonline.com)에 따르면 최근 '빌더 10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개발업체 중 44%가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커뮤니티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55세 이상 커뮤니티 6곳을 운영하고 있는 TRI포인트 그룹 마케팅 책임자 리다 마멧 CMO는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보다 탄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활동적인 세대"라며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 산책 및 자전거 코스를 설계하는 것은 기본이고 단층을 기본으로 개방형 주방, 손님을 치르기 좋은 넓은 뒷마당, 채광을 높이기 위해 많은 창문 등 일반 주택과는 다른 구조로 건축한다"고 설명했다.

또 '빌더 온라인'에 따르면 최근 신축 실버타운은 이전보다 주택 사이즈가 작고 부대시설도 골프 코스나 호화로운 골프 클럽보다는 카페, 산책 코스 등과 같은 베이비부머들의 니즈를 반영한 소박하면서도 효율적인 부대시설이 인기라고 한다.

▶장단점

55세 이상 커뮤니티 거주에 있어 최대 장점은 거주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침입자로부터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이 좋다는 것 외에도 주택 내부 역시 계단을 최소화하고 넓은 문 사이즈 등 갈수록 노령화되어가는 입주민들이 실내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주택이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이주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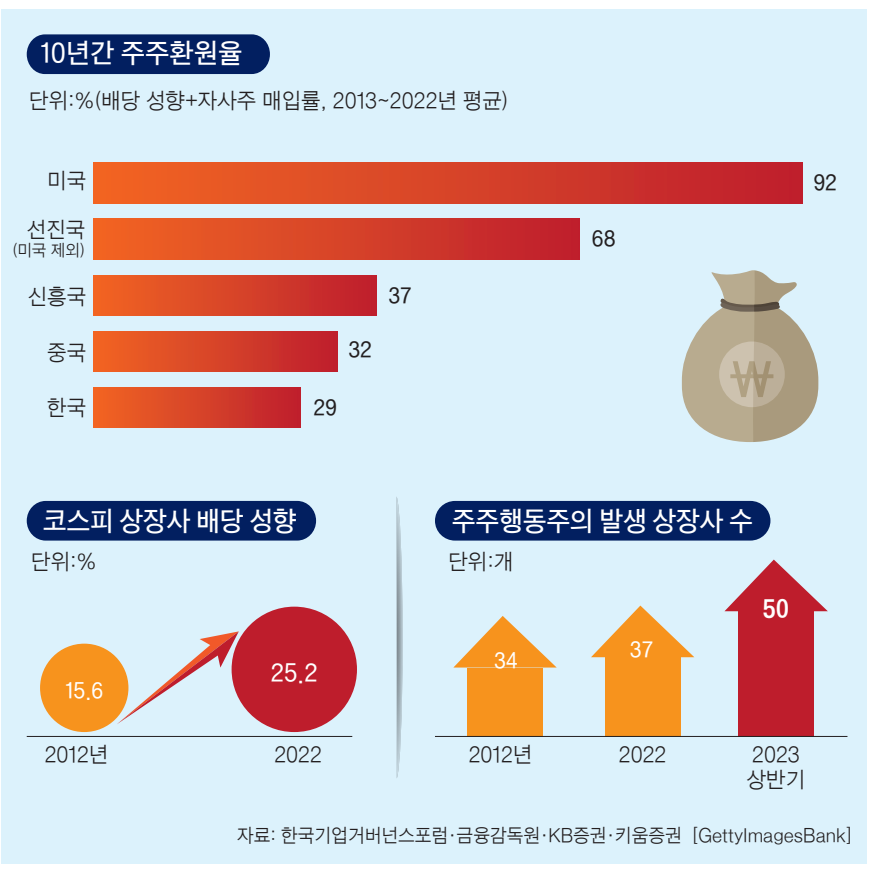
» 2면 '은퇴'로 이어집니다

중국보다도 낮은 주주환원율,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겨

〈배당+자사주 매입〉

지난해 말 '산타 랠리' 이후 새해 들어 지지부진하던 한국내 증시가 모처럼 웃었다. 2일 코스피는 2559.40으로 출발해 2615.31로 마감, 전일보다 2.87% 상승했다. 코스피의 2600선 재돌파는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종목 위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 저(低)PBR 종목의 가치 상승을 유도키로 한 데 따른 기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17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저PBR 종목 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 계획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을 독려해 PBR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자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금융감독원·KB증권·키움증권 [GettyImagesBank]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42.46)보다 2.87% 상승한 2615.31에 장을 마쳤다. [뉴시스]

애플, 자사주 매입·소각 560조 써 주가 12배

PBR은 증시 상장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다. 1배보다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종가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PBR은 평균 0.9배다. 미국 S&P500(평균 4.58배)이나 일본 니케이225(평균 1.41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인 포스코홀딩스(0.66배)와 현대차(0.46배)·기아(0.89배)·SK텔레콤(0.96배)·LG전자(0.82배) 등 내로라하는 우량주도 PBR이 1배에 못 미친다.

그래서 정부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등의 구체적인 밸류업 실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런데,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내 기업의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일본처럼 상장폐지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기업이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PBR 1배 이하 기업에 저평가 원인과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주가 부양·안정에 실패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 주주환원율 29% 소극적

미국 92%, 신흥국 37%, 중국은 32%

한국, 상속세 우려 자사주 매입은 7%

투자 수익률도 25%로 바닥권

필리핀 96%, 말레이 38%에도 뒤져

정부도 "주주환원·PBR 제고" 촉구

코스피 한 달 만에 2600 재돌파

금융위 '기업 밸류업' 가동 밝히자

저PBR 종목 중심으로 2.87% 상승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기에 정부가 이것만을 근거로 상장폐지 등을 강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내 주식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금융업계의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무엇보다 주주환원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상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등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도 올해 들어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다.

실제 지난달 코스피는 전월 마지막 거래일 대비 7%가량 빠졌는데 미국 S&P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일본 니케이225는 22일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 회복 기대감에 증시로 자금이 몰린 덕분이다. 지난해에도 미국 나스닥이 전년 대비 43%, 니케이225가 28% 오를 동안 코스피는 18%대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이 자사 투자자를 등한시하는데 누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겠는가"라며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은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주환원율은 상장사가 순이익 중 투자자인 주주에게 얼마만큼 수익으로 내주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주주환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배당금 지급이고 다른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다. 배당은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일 20일 주주들에게 지급한 3분기 배당금은 1주당 361원이었다. 9월 말 기준 1000주를 보유했으면 36만1000원, 그중 15.6%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30만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다.

자사주 매입은 이런 배당 못잖게 효과적인 주주환원 방법으로 통한다. 그 자체가 기업의 주가 부양·안정 목적으로 시장에서 해석되는 데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해 유통량을 줄이면 해당 주식의 가치는 수요-공급 원칙과 주당 순이익(EPS) 증가에 따라 자연스레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국 애플의 경우 2012~21년 5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썼다. 이 기간 애플 주가는 12배 올랐다.

일본, PBR 1이하 기업엔 상장 폐지 경고도

KB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10년간(2013~22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92%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68%, 신흥국은 37%, 중국은 32%였다. 반면 한국은 29%로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못 미쳤다. 특히 한국의 자사주 매입률은 이 기간 7%에 그친다. 이처럼 한국 기업이 주주환원에 인색한 건 한국내 주요 상장사 상당수가 오너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주가가 오르면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경영권 승계 때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굳이 돈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보다는 대주주 지분율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증시의 투자 수익률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저조한 편이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2012~18년 코스피 투자자의 누적 수익률은 25%(배당 13%, 주가 12%)로 S&P500의 130%(배당 31%, 주가 99%), 유럽 유로스톡스의 55%(배당 39%, 주가 16%), 중국 CSI300의 49%(배당 21%, 주가 28%)에 한참 못 미쳤다. 필리핀 PCOMP(96%), 태국 SET(91%), 말레이시아 FBMKLCI(38%)에도 못 미친다.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증시는 필리핀·말레이시아보다도 못한 시장인 셈이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의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리는 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주주가치 상향 방법을 공표하고, 이것의 이행 여부를 이듬해 보고서에 공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 성과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모든 주주 이익을 우선시할 때 탄탄해진다"며 "증시에서 신뢰를 얻어야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적 성장 기반이 닦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업들이 대주주의 사익 극대화보다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율 제고에 전념해야 한국 증시 선진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균 기자

» 1면 '은퇴'에서 이어집니다

또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클럽 활동,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시니어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아마도 커뮤니티 입주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HOA 및 기타 부대 비용일 것이다. 55세 이상 커뮤니티는 대부분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데 드는 HOA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일부 커뮤니티는 월 HOA 비용이 수 천 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또 많은 가구가 있다 보니 입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규칙과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는 소음을 내서는 안되며 주택 외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외부 방문객의 장기 체류 또한 금지된 곳도 많다.

또 55세 이상 비슷한 연령대의 거주자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커뮤니티 입주가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최대보상
개인상해 보상청구
Chapter 7: 개인 파산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재건축 부담금 확 준다…"20년 보유 1주택자 1.1억→840만원"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시뮬레이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경감안 예고
최대 70% 경감, 10년 보유 땐 50%
초과이익서 빼는 '개발비 범위' 확대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아졌다. 또한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게다가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했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난 '1·10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조합원의 부담을 더욱 덜었다. 당초 재건축 사업 시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를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개선했다. 또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 기간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론적으로는 부담금이 최대 90% 이상 줄어든다.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의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 개정 이전에 1인당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이 단지는 법 개정 효과로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부담금은 4400만원이 된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까지 감소한다. 20년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부담금은 84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번 시행령에는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속·결혼으로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 사업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도 일정 기간 처분 조건을 달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1가구 1주택자 세대원은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김원 기자

재초환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사례

적용 방식 구분		부담금(원)
종전 법률 적용		1억1000만
개정 법률(부과 기준, 개시시점 변경) 적용		5500만
시행령 개정안 적용	신탁비용 반영 시	4400만
	신탁 + 공공임대 비용인정 확대	2800만
장기 보유 감면	6~20년 보유 (1가구 1주택)	840만(20년)~2520만(6년)

반려동물 시설 부족한 서울, 연천에 테마파크 만든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여러 지자체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다. 반려동물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놀이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마파크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 등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 연천군 군남면 일대 임진강 유원지 부지 약 12만㎡에 조성한다. 이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조감도)라고 한다. 이곳에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수영장, 반려견 놀이터, 훈련소, 동물놀이터, 동물미용실 등이 들어선다. 테마파크는 올해 조성을 시작해 이르면 2026년쯤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테마파크 조성·운영을, 연천군은 기반 시설 공사, 임진강 하천구역 정비 등을 맡는다. 건립비용은 450억원 정도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연천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가는 서울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경기 여주·오산 등 2곳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을 포함해 경기 북부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22.2%), 반려동물 수는 114만7000여 마리에 이른다. 연천군 역시 군민에 더해 생활인구를 늘려야 하는 처지다. 생활인구에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도 포함한다. 연천군 면적은 675.83㎢로 서울시 605.2㎢보다 넓지만,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4만1000여 명이다.

테마파크 인근 약 5000㎡ 부지에는 '반려동물 추모관'도 만든다. 서울에서는 한해 13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중 46.8% 정도만 '반려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동물 장묘시설은 전국에 총 7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시설은 전북 임실 한 곳뿐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추모관에 화장장 또는 건조장·봉안당 등 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전국 곳곳에 설치 중이다. 2021년 경북 의성군이 '의성 펫 월드'를 만든 데 이어 울산시·경기도 등이 운영 중이다. 의성 펫월드에는 놀이터·풀장·카페·공연장·캠핑장 등 시설이 있다. 대전·부산·천안·순천시 등도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한국공항공사도 지난해 10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인근에 8000㎡ 규모의 펫 파크를 조성했다.

이런 가운데 테마파크 인근 주민이 개에 물리는 사고나 유기 동물 발생 가능성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관광시설 등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정광호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반려인 교육과 반려동물 등록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테마파크를 조성해야만 한다면 유기동물 입양센터, 동물문화 교육센터를 함께 짓고 등록이 안 된 동물은 출입을 금하는 등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기 기자

"분당·일산 고층 아파트 재건축 교통지옥 예방책부터 만들어야"

"지금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더 극심한 교통지옥이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해요."

대한교통학회(회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가 꾸린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장'을 맡은 금기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는 교통 분야 전문가 4500여 명과 150여 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로 지난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렸다.

재정비 논의 과정을 분석해 온 금 교수가 '교통지옥'을 우려하는 까닭은 이랬다. 지난해 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대상 지역과 용적률 법정상한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적·제도적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용적률·건폐율 같은 건축규제의 완화 폭이다. 얼마나 높게, 크게 재건축이 가능하냐에 따라 사업성과 부동산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50%(1.5배)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3종 주거지역 아파트는 종상향 등을 거치면 산술적으론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같은 면적의 토지에 재건축한다고 가정하면 20층이던 아파트를 헐고 최고 7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 300~400% 사이가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 속에 교통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재정비가 이뤄지면 거주 인구가 크게 늘고, 서울 등지를 오가는 통근자 수와 차량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을 늘리고 주차장부터 마련하는 등 미리 대비를 안 하면 힘겨운 출퇴근·통학길이 더 악화할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침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날 열린 학회 주최의 1기 신도시 교통정책토론회에서도 여러 우려사항이 제기됐다. '도로 분야: 지·정체 과연 해결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표한 김흥태 신명이엔씨 상무에 따르면 분당신도시를 단순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1만1800세대가량 증가하고, 교통량도 하루 평균 3만대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산 등 다른 1기 신도시 양상도 별반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 빌라와 고층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챈틀리 타운홈 — PENDING — $560,000 — 방3, 화3.5, 차고1, End Unit, 2009년산, 사우스라이딩

버크 타운홈 — PENDING — $549,000 — 방4, 화3.5, 2 Assigned, 뉴키친, 뉴윈도우, 굿 로케이션

센터빌 싱글홈 — PENDING — $690,000 — 방3, 화3.5, 차고2, 새지붕, 새HVAC, New Flooring, 뒷마당 넓은 집, Fully Fenced

COMING SOON
헤이마켓 싱글홈 — 방4, 화4.5, 3600sf, 업그레이드 중
페어팩스 타운홈 — 방3, 화3.5, 업그레이드, 굿 로케이션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 경 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와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버치우드 앳 브램블턴’ 전원생활의 낭만을 드립니다

밀러 앤 스미스 사의 ‘버치우드 앳 브램블턴’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버치우드 앳 브램블턴’은 세련된 주택, 풍부한 편의시설, 환상적인 위치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55세 이상을 위한 커뮤니티로 조성됐으며 주택 소유자들이 쇼핑, 식사,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브램블턴 타운 센터에서 가까운 위치로 편의성이 크다.

인근에는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기념일을 축하하거나,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루던 카운티의 특별한 장소인 ‘더 반 앳 브램블렛턴’이 소재했다. 브램블턴 타운 센터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한 ‘더 반 앳 브램블렛턴’은1940년대 낙농 헛간을 복원하여 2층으로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대규모 그룹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홀 외에도 여러 개의 소회의실, 케이터링이 가능한 주방, 잘 꾸며진 스위트룸이 있다. 상부 데크와 하부 테라스, 원형극장에서는 하객들이 버지니아 시골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도 있다.

밀러 앤 스미스 에릭 한센 매니저는 “더 반 앳 브램블턴은 이 지역의 농업적 뿌리를 기리는 동시에 커뮤니티의 각종 행사들을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소개한다. 그는 “루던 카운티의 과거 랜드마크인 오래된 낙농 헛간은 특별한 이정표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장소”라고 덧붙였다.

‘더 반 앳 브램블턴’은 파티와 이벤트를 주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사회를 위한 예술 및 공예 장소로 활용되며, 연중 여러 박람회를 개최하고 각종 이벤트와 워크숍 행사도 열린다.

‘버치우드 앳 브램블턴’은 운동실, 아트 스튜디오, 피클볼 및 보체볼 코트, 실내 및 실외 수영장, 낚시 부두 등을 갖춘 두 개의 넓은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입주자들에게 탁월한 현장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나 투어는 전화(703-896-0717) 또는 이메일(ehansen@millerandsmith.com)로 문의할 수 있다.

Miller & Smith’s Birchwood at Brambleton residents have it all–sophisticated homes, enriching amenities and a fantastic location. This 55+ community is just minutes from Brambleton Town Center, where homeowners enjoy ample shopping, dining,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Another prime venue close by is The Barn at Brambleton, Loudon County’s one-of-a-kind venue for exchanging vows, celebrating milestones with friends and family, or hosting unforgettable corporate events.

Located just minutes from Brambleton Town Center, the restored 1940s dairy barn offers room for up to 200 guests on each of its two levels. In addition to expansive halls to accommodate large groups, the building contains multiple break-out rooms, a catering-ready kitchen and well-appointed bride and groom suites. An upper deck, a lower terrace and an amphitheater invite the crowd outside to enjoy sweeping views of Virginia’s countryside.

“The Barn at Brambleton honors the area’s agricultural roots while inviting the community to become part of its story,” said Eric Hansen, sales manager with Miller & Smith. “The old dairy barn, a landmark of Loudoun County’s past, is a place to mark special milestones and new beginnings.”

In addition to hosting parties and events, The Barn at Brambleton serves as an arts and crafts venue for the community, hosting multiple fairs throughout the year along with events and workshops.

Birchwood at Brambleton offers residents exceptional on-site amenities, including two spacious clubhouses with an exercise room, an art studio, pickleball and bocce ball courts, indoor and outdoor pools, a fishing pier and much more!

For more information on our available homesites at Birchwood or to schedule a tour of our four decorated new model homes, contact Eric Hansen at 703-896-0717 or email ehansen@millerandsmith.com.

Learn more about Birchwood at Brambleton by visiting www.MillerandSmith.com.

About Miller & Smith

With beautiful communities of new homes for sale in Virginia and Maryland, Miller & Smith has been the D.C. area’s premier homebuilder and real estate developer since 1964. Miller & Smith’s unique approach to homebuilding has driven the company to build nearly 20,000 homes in some of the D.C. metropolitan region’s most innovative and imaginative new home communities. For more information on Miller & Smith, visit www.MillerandSmith.com.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온 회계법인 조동구 CPA)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비키 리 부동산인가? 왜 악착같은 부동산인가?

1 17년 경력의 주택 관리 능력과 16년 연속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탑에이전트,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갖춘 브로커, 비키 리 입니다.

2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법,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혹은 각 카운티 별 준수해야하는 부동산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펫 디파짓: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Non refundable pet deposit 은 불법입니다.

예) 브로커가 아닌 에이전트가 임대주택관리 해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예) 디파짓은 2개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스모크디텍터: 각방마다 각 층마다.
지하실과 주방 이산화탄소 &amp: 스모크디텍터 설치

3 고객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며 계약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의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비키 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 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전화 문자 703-231-5572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융자 칼럼

세금보고

지난 1월 29일을 기점으로 2023년도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시작되었다.

세금보고 시즌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나면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느라 부지런히 시간을 보내게 되는듯 하다.

어떤이들은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고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오려나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감으로 분주히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이들에겐 두어달 남짓 남은 시간동안 이래저래 자료들을 더 모으고 예상 납부세액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하는 노력을 해야하는 시간이리라. 특히 지금처럼 폭등한 물가, 치솟는 금리,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경제사정등, 여러 상황들이 아직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겐 조금이라도 납세액을 줄여보고자 가계재정에 한푼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듯 하다.

이즈음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주택융자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 지면을 통해서 세금보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사실 주택융자은행은 과거와는 달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IRS 를 통해서 최근 년도 혹은 최근 2년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융자를 진행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IRS 를 통해서 확인한후에야 인정소득 (qualifying income)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만일 지금 주택융자신청인이 2023년도 보고한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금보고가 서둘러 마무리 되어야만한다.

w-2 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 2023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해당년도의 인컴을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만한다.

단순히 세금보고만 마무리되었다고 다 된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또한 완납되어야하고, 설사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은행들은 4506-T 양식으로 IRS 를 통해 tax return transcript 를 받아보고 이를 통해 융자 심사에 사용되는 인정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대비한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서 tax return transcript 가 나오는데 까지 꽤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두어야 만에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소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나 융자승인 과정의 지체를 피할수 있게 된다. 또한, 세금보고상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융자 은행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한후에야 해당연도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에 임하는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고 분활상환해야하는 경우는 융자심사시에 분활상환하는 매월 납부세액 자체가 융자신청인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 부채로 간주하므로 그만큼의 페이먼트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는 소득이 추가로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길 당부드린다.

▷문의: 703-868-7147

부동산 이야기

투자용 부동산 관리

몇 주 동안 부동산 투자의 기본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다. 이번 주에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효과적인 관리에 대하여 조금 알아보자. 부동산 투자의 또 다른 매력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같은 다세대 건물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구매만큼이나 구입하고 난 다음의 관리도 중요한데 관리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투자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다달이 들어오는 렌트 수입으로 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와 구매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재산세, 유틸리티, 그리고 건물의 수리비나 예기치 못한 공실률 등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보통 아파트를 소유하면 월 렌트비의 20%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운페이먼트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예산에 맞추어 구매를 하고 난 후에 유닛의 수가 적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때는 주인이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집 가꾸는 것을 좋아하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은퇴한 부동산 오너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세입자와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전문관리 회사에 맡겨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을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주된 업무인 렌트 걷기, 부동산 광고 등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임대관리 업무를 순조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잘 보수 유지하고 테넌트와 계속 원만히 지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주로서는 매달 일정한 비용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이런저런 업무들을 부동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확실한 부동산 관리회사를 고용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임대 시장에서 수백 명의 임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건물 수리나 테넌트 선별, 렌트 수납, 그리고 아파트의 잔디나 도로, 기물, 공공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 공정한 주택관리 규정 등 검증된 방침과 업무 방식을 갖고 전문적인 부동산관리를 하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부동산 관리회사의 수익은 부동산 주인에게서 받는 수수료에서 나오는 데 이 수수료는 보통 렌트의 5~15%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관리는 전문 회사를 선정해도 되고 건물을 사준 에이전트한테 부탁해도 되는 데 좋은 부동산 관리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안서에는 부동산의 운영플랜, 구체적인 관리 일정, 대규모 수리가 필요할 때의 계획이나, 목표수익, 비용절감 계획, 공실률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미셸 원 BEE부동산 부사장

인컴유닛 구매 시 주의사항

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동산 중의 하나는 2~4유닛으로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 '인컴유닛'이다.

인컴유닛은 정부 규제에 따라 운영되므로, 관련된 지역 규정 및 캘리포니아 주의 임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렌트비 인상의 제한이 있고 마음대로 임대인을 쫓아낼 수 없거나 임대인이 3년 이상 거주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컴유닛 구매 시에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임대인이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차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부동산 구매 시에 에이전트들이 임차 계약서를 셀러 측에서 받아주지만, 가끔 잊어버리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임차 계약서가 없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현재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셋째, 만약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대를 이행할지 여부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구매전에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소득 기준 유닛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구매 전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정부의 규정을 어기게 되면 현재 소유한 인컴유닛에 'REAP RECORDING'이 붙게 된다. 'REAP'는 'Rental Escrow Account Program' 의 약어로,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임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REAP에 빠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임대 중단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임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둘째, 수리 및 개선 요구로 REAP가 발동되면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따른다. 이때,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셋째, REAP가 발동되면 인컴유닛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AP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가 따른다.

첫째, 먼저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다시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실시하여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넷째, 부과된 벌금은 지불해야 한다. 보통 벌금은 REAP이 발동된 날짜부터 유닛마다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에이전트한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캐티 리 드림부동산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간편하고 쉬운 POS
◆ 재고 관리 기능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Pay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WBS
WORLD BANKCARD SERVICES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손흥민은 무관의 월클? 라스트 댄스는 이제 시작

"마지막 아시안컵? 손흥민이라면 2027년 대회도 문제없다고 봐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한창인 카타르 도하에서 일본의 베테랑 축구 기자가 한 말이다. 그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의 몸은 한국인의 것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손흥민의 근육 상태를 "쫀쫀하다"고 표현하면서 "몸이 외국인 같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피로 회복 속도가 후배들보다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14년 전인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을 통해 A매치에 데뷔했다. 튼튼한 몸과 철저한 관리 덕분에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에 개근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3개 대회(2014, 2018, 2022)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개 대회(2011, 2015, 2019, 2023)에 빠짐없이 출전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이 그의 일곱 번째 메이저 대회다. 최고 성적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과 2015년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이다.

'무관'이 손흥민의 명성에 누가 되진 않는다. 그 자체로 이미 특별하니까. '한국의 자랑'이라 표현하기엔 그는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다. 세상에서 시청자 수가 가장 많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땄다. 135년 전통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득점과 도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아시아인이기도 하다. 앞으로 손흥민을 능가할 아시아 축구 선수가 나올까? 쉽지 않아 보인다. '사상 최고의 아시아 공격수'란 타이틀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손흥민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에선 손흥민의 위상을 확인하기가 쉽다. 지하철역·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마다 걸린 프리미어리그 중계 홍보 포스터의 모델이 바로 손흥민이다. 다른 이유? 그런 거 없다. 프리미어리그가 보기에도 지금 손흥민이 '가장 내세울 만한 스타'이기 때문이다.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는 손흥민을 광고 촬영장에 모시려고 전세기를 띄운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 다니엘 리,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스타 톰 홀랜드가 손흥민과 사진을 찍으며 어린애처럼 즐거워한다. 손흥민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이다. 세상 어디서나 이름만 대면 통할 그런 '거물'이다.

손흥민은 팝 스타가 아니라 스포츠 스타다. 팝 스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다. 인기와 작품성의 인과관계가 희미하다. 걸작이라서 100% 흥행한다는 보장이 없고, 반대로 흥행했다고 모두가 완성도 높은 작품인 것 또한 아니다. MBTI로 비유하자면 F(감성)의 영역이랄까.

스포츠 스타는 본인 분야에서 '최고'임을 인증할 객관적 방법이 존재한다. 2022~23시즌 세계 최강 국가대표팀은 (FIFA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였다. 클럽은 (UEFA 챔피언스리그를 석권한) 맨체스터시티다. 세계 최고 축구 선수는 (발롱도르를 수상한) 리오넬 메시다. 딱 정해져 있다. 'T(이성)' 성향인 스포츠는 객관적인 지표가 기준이 된다.

손흥민은 올해 32세다. 카타르 다음의 메이저 대회는 2026년 월드컵(북중미)과 2027년 아시안컵(사우디아라비아)이다. 그때가 되면 손흥민은 34세와 35세가 된다. 손흥민의 기량이 30대 중반까지 유지되리라고 장담하긴 쉽지 않다. 카타르 현지에서 만난 외국 기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손흥민의 마지막 아시안컵'이란 표현을 듣는 사람마다 "왜?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는 건가?"라고 되묻는다. 그들에겐 손흥민이 한국 축구의 영웅이 될 시간이 충분해 보이는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30대 초·중반의 메시와 호날두가 성취한 것들이 떠올랐다.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메날두'에 준할 만큼 예외적이다. 몸 상태마저 특별하다. 그는 국내 선수들 사이에 일반화된 각종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는다. 다음 메이저 대회에서도 손흥민과 함께 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메시가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해낼 줄 누가 미리 알았겠는가? 10년 넘게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희망이었다. 희망은 실현될 때까지 늘 유효하다.

홍재민 축구 칼럼니스트

웰컴투 삼달리·소년시대…감동의 OST, 그 뒤엔 '개미'가 있다

〈본명 강동윤〉

"얼렁뚱땅 살던 세상 이제부턴 다 필요없다/ 눈치보며 살기 싫다 엎어치기 한판승" (노라조 '이판사판')

지난해 연말 인기를 모았던 쿠팡플레이 드라마 '소년시대'를 봤다면 이 노래를 모를 수 없다. 드라마의 메인 OST이자, '온양 찌질이' 장병태(임시완)가 싸움으로 충청도를 제패한 '아산 백호' 정경태(이시우) 흉내를 내다가 들킨 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경으로 사용됐다. 국악과 기타를 접목한 신명 나는 멜로디가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몰입도를 더했다.

'소년시대' OST를 총괄한 사람은 개미 음악감독(강동윤·52)이다. 조용필의 명곡을 바탕으로 한 '웰컴투 삼달리'(JTBC) OST도 그가 맡았다. "'소년시대'와 '웰컴투 삼달리'로 성공적인 연말연시를 보냈다"는 개미 감독을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개미 감독에 따르면 '소년시대' OST는 "가장 이상적인 작업물"이다. 연출인 이명우 감독이 '이판사판' '테이크 미 홈' 등의 작사에 참여해 주인공 서사를 녹여냈다.

"드라마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감독이 OST 작사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감독이 글 재주가 좋아서 결과물도 마음에 들었어요. '테이크 미 홈'은 드라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내용인데, 주연인 임시완이 불러 마무리가 완벽했죠."

1980년대 후반의 드라마 배경은 개미 감독의 개인적인 향수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개미 감독은 올드팝을 들으며 영상 음악 분야의 일을 꿈꿨단다. 공교롭게도 '소년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작업한 '웰컴투 삼달리'도 1980년대 조용필 히트곡이 드라마 전반에 사용됐다.

"드라마 대본을 보고 시대 배경의 정서를 음악에 잘 담아내는 것이 음악 감독의 역할입니다. 병태의 사랑 이야기에 필요했던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올드팝은 1980년대에 제가 실제로 좋아했던 음악 스타일입니다. 조용필 노래도 정말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기에 '웰컴투 삼달리'에선 조용필 노래를 재해석할 상징적인 가창자를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개미 감독은 예명처럼 쉬지 않고 일한다. 2022년엔 드라마 11편, 2023년엔 10편의 OST를 만들었다. 올해 상반기 스케줄도 꽉 차 있다. 이처럼 '열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재미있어서"라고 했다.

황지영 기자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catch up; ~를 따라잡다, (다른 사람 수준과 맞춰) 따라가다

(It's lunchtime and Ellen walks into Amy's office…)
(점심 시간에 엘런이 에이미의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Ellen: A few of us are getting together for lunch. Do you want to come?
엘런: 우리 몇몇이 모여서 점심 같이 먹으려는 중이야. 함께 갈래?
Amy: I'd love to but I've got some catching up to do.
에이미: 그러고 싶은데 뒤쳐진 일을 해야 해서.
Ellen: What's the problem?
엘런: 무슨 일인데?
Amy: I was out with the flu last week.
에이미: 지난 주에 독감으로 결근했거든.
Ellen: That's right. You missed a few days.
엘런: 그렇지 . 며칠 못나왔지.
Amy: Yeah and now I'm way behind.
에이미: 응 그래서 한참 뒤쳐졌어.
Ellen: That's why you're passing on lunch?
엘런: 그래서 점심을 안먹는 거야?
Amy: Yeah I really have to stay and finish this.
에이미: 응 정말 남아서 이 일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야.
Ellen: I'll bring you something back.
엘런: 그럼 뭘 좀 사가지고 올게.
Amy: I'll have a tuna sandwich. Thanks a lot.
에이미: 참치 샌드위치로 할게. 정말 고마워.

기억할만한 표현

▷ get together: 함께 모이다
"We should get together for lunch next week."
(다음 주에 점심 먹으러 함께 만납시다.)
▷ (one) is way behind: 한참 뒤쳐지다
"If you don't do your homework you'll be way behind your classmates."
(숙제를 안하면 넌 급우들보다 한참 뒤쳐질 거야.)
▷ pass on (something): ~를 사양하다 거르다
"I'm going to pass on having more pizza."
(피자를 더 먹는 건 관두겠어요.)

낱말퀴즈

1	2	■	3	4	■	5		6
7		■	8		9		■	
	■	■	■	10		■	11	
12	13	■	14		■	15		■
■	16	17		■	18			■
■	19		■	20		■	21	22
23		■	24		■	■	■	
	■	25			26	■	27	
28			■	29		■	30	

●가로 열쇠
(1)거문고 따위의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부름 (3)아내가 남편을 도움 (5)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7)어떤 사물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 (8)겉으로는 강하고 꿋꿋하게 보이나 속은 부드럽고 순함 (10)손도장 (11)마음이나 기운이 꺾임 (12)선인장이 자라는 곳 (14)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장소 (15)봉급을 정한 날짜 전에 지불함 (16)약손가락 (18)가까운 데 것은 잘 보이나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는 눈 (19)시에 곡을 붙인 성악곡 (20)잔칫집이나 상가 등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줌 (21)산속의 나무나 돌 사이에 석벌이 모아 놓은, 질이 좋은 꿀 (23)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짓 (24)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 (25)멍하니 정신을 잃음 (27)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벽 모양의 바위 (28)헤엄칠 때 발등으로 물 위를 잇따라 치는 일 (29)넓고 먼 곳을 멀리 바라봄 (30)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배포. 공동묘지에서 ~을 기르다

●세로 열쇠
(1)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임. 한 번의 실패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 (2)맑고 푸른 하늘 (3)남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기를 피하는 일. 조선 시대에는 ~의 풍습이 엄격했다 (4)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 (5)가축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6)좋은 때. 춘삼월 ~ (9)가슴이나 뱃속에 있는 기관 (11)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음 (13)한번 굳게 고집하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 동생은 ~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 (14)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15)탱자나무와 선인장에 달려 있죠 (17)이름난 악곡 (18)삼가 조의를 표함 (20)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대로 전함 (22)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 (23)흉이나 허물이 될 만한 일. ~ 없는 사이 (24)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 (25)아흔을 바라봄. 여든한 살을 이르는 말 (26)기대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함 (27)희망이 없고 막막함

병	창	■	내	조	■	구	미	호
가	공	■	외	강	내	유	■	시
상	■	■	■	지	장	■	좌	절
사	막	■	거	처	■	가	불	■
■	무	명	지	■	근	시	안	■
■	가	곡	■	부	조	■	석	청
흉	내	■	공	전	■	■	■	천
허	■	망	연	자	실	■	암	벽
물	장	구	■	전	망	■	담	력

스도쿠

		5				4		
	2		3	4				6
		3	7		6			1
				5				
5			1		7			2
				2				
6			4		2	3		
9				7	8		5	
		7				1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7	6	5	2	8	1	4	9	3
1	2	9	3	4	5	7	8	6
4	8	3	7	9	6	5	2	1
8	1	2	9	5	3	6	4	7
5	9	4	1	6	7	8	3	2
3	7	6	8	2	4	9	1	5
6	5	8	4	1	2	3	7	9
9	3	1	6	7	8	2	5	4
2	4	7	5	3	9	1	6	8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싸움**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척추 디스크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2월 구인광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풀/파트타임 가능
▶ 영어 가능하신 분
▶ 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환영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MD,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센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염가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 풀타임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매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MD,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아난데일 부동산회사 -리셉셔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및 쥬얼리 리페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 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페이셜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소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외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 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 confidental.hr@gmail.com
전화문의 :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 410-480-5234/ 지역 : 엘리콧시티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풀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 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crc@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 /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패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옵션 (10 AM-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추레이닝,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센터빌 Honest Grill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안 bbq
서버, 해드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츄레스 구함
703-333-3400

MD 포토맥 지역 뉴일식당
스시맨, 서버, 캐쉬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 모집
* College Park Area, MD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핸디맨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POS 지원/ Pricing Analyst/Lead Cashier
*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 이중언어 가능자
* PT 20~35HR : $17~20/h
*간단한 자기소개서는 Email: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챈틀리 Cafe Moment
금/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

캐시어 구함. 볼티모어 지역. 높은페이 델리
443-621-4951

(구직) 히바치쉐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 분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703-473-6022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파타임, 풀타임
703-717-2596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자격 :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 (풀,파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아에서
수선 및 캐쉬어 하실 분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트·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쳐지 지역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커머셜 캐비넷 및 밀웍 제작에 능한 팀원 모집
- 드로잉 이해가능, 코리안 카운터탑 경험자
- 높은페이, 평균이상 근무시간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베네펫,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건물관리 도와주실분 (월-토)
Oxon Hill, MD
240-903-077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 분.
410-961-301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 joymiahan0629@gmail.com

Mclean/Tysons, VA 아이들 하교 bus 도와
주고, 간단한 cooking, 운전 필수. Part time
718-309-4969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덕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 주5일 , 1-6pm ,
아기 픽업가능한 분 , 성실한 분
213- 839- 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 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 분 파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 분
을 모십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우드브릿지 타운홈, 방3, 화2½,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2,500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703-244-3453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장실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합니다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구독 : 703-281-9660,1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펙스 타운홈 $3,000. 방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펙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703-762-6759

즉시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애난데일 H 마트입구 콘도렌트
방1.욕실1. 발코니. 파킹2
11월초 입주가능,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문의 요함)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이노바 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
전체 (입구 따로 있슴) 방2, 목욕탕 2, 거실, 취
사 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 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 홈 이층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인터넷 완비,
한아름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 출입문별도, 간단취사, 금연자
571-243-6295

노스포토막,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2+Full Bath
571-830-4053

패어팩스지역 GMU 걸어서 1분거리 2층방
단독화장실 주방 주차편리
347-421-7894

단독주택 2층 큰방/주차/인터넷/ 가구완비/
냉장고 별도/ 샤워별도/29 번과 198 번 만
나는지점, Burtonsville, MD 20866
240-413-2738

애난데일 중심 싱글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703-606-0700

폴스처지 싱글홈 지하 룸메이트 $450
즉시입주, 작장남자분 환영
571-224-3383

MD 저먼타운 싱글 2층 방1개 , 침대,
가구 완비, 뉴그랜드마트 옆, 인터넷(유포)
301-538-1438

웨어옥스몰근처 방 Rent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mr. 권(571)525-4220

페어팩스50번도로 66도로사이
비엔나전철역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환영
571- 530-7322

페어펙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애난데일 노바대학 공원 옆 싱글홈
가구, 침대, 나무 마루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
깨끗하고 조용한 집, 방 1개/2개 (욕실 별
도). 학생, 직장인 환영
문의: 703-336-3283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H 마트 뒷 콘도 화장실 딸린 큰 방
703-300-8669

애난데일 H 마트 옆, 방 1개 렌트
인터넷 및 가구 일체, 유포 $800
직장 다니는 분 환영, 12월 중순 입주
703-350-1986

센터빌 H마트옆 조용한 반지하, 주차 사용
571-332-4559(문자 주세요)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 워크아웃 지하전체 방3개
- 넓은 리빙룸, 유포(인터넷)
-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음
571-488-5860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문자 요망)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방1개, 전기포함 $600, Elkridge, MD
631-834-2679 / 410-245-2702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커머셜 콘도 800sq 렌트합니다.
571-237-3411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닌데일 콘도 $200,000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꿀돼지 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애닌데일 콘도 $250,000
방2, 화장실1, 리모델한 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703-477-3114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홈 $399,900
2019년 새단지 새집. 1 Car Garage,
End Unit. 방3, 화장실3½, 탁트인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1, 화장실1. 962s.f. Many Upgrades,
Newr Appliances, Newr HV/AC.
Tyson's Corner 가까움.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mart옆 엘리베이터 있는 콘도.
방2, 화장실2, 3월 귀국, 오너 급매.
703-350-1986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랜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 571-421-0863

DC.리쿼 비지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598,000. 6일근무. 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가능)
571-242-3736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집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 바람)

애난데일 마트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 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 바람.
703-582-8689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장소
703-850-3714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터C
• 시간 :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 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새해(2024년) 달력 판매 (벽걸이)
1Box= 100 부/ 강아지그림. 가격: $110.
연락:571-242-3736

해피 라이딩 (bike riding)
평일 오후/ 도로와 흙길/ Wakefield park
703-945-2991 (message)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 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9,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2006 ACURA MDX SPORT WG
23000 Miles $5000.00
703-624-5506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쥬키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 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3스타 혼마세트 2여행용가방 1카트
가격조정가능 문자요망
240 500 0035

남성골프채 DRIVE
1)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R $600
2) PXG 0811x+PROTO
10.5 도 /R $170
301-717-7960

물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지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 x 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덴탈랩 장비와 재료 총$500
240-423-9968

집안에 모아 둔 남녀 금, 다이아반지,
시계, 목걸이 및 팔찌 등 사실분. 문자요망
240-718-8050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융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 K18 , K14, K10 ,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및
얼룩제거 ,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JK유리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무료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덱, 마루, 캐비넷 샌딩 보수
플로밍. 핸디맨 써비스

703)965-3011

유리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팩션 도와드림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림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Nest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융 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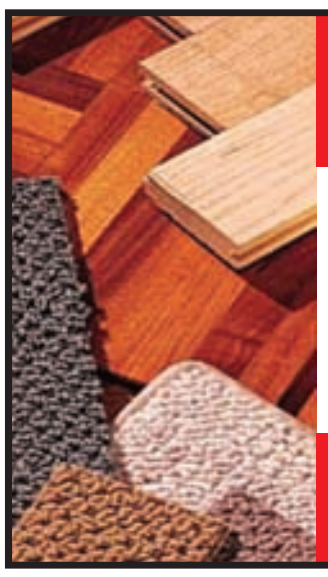
703-582-7757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시공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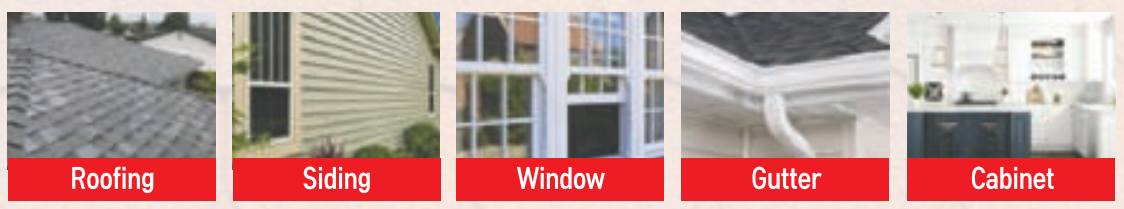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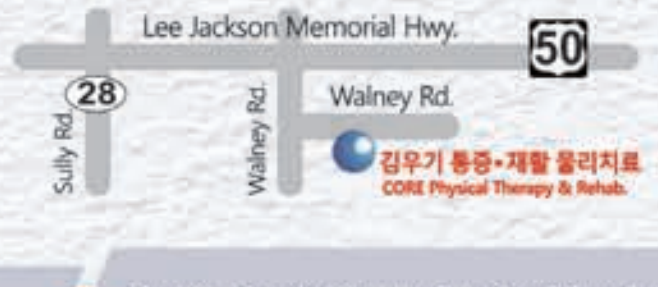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 기타 지역

하숙·렌트 | 구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장고완비
Income Limit (섹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스시맨/주방쿡
숙식제공,죠지아주지역
(646)229-270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비즈니스 상용 융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융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융자 간단하고 빠른 융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융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융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융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의학박사 서영수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부에나팍
천종산삼원
구정맞이 특별세일
천종산삼
소중한 분께 '명품산삼'을 선물하세요
산삼에 대한 궁금증을 "산삼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세일!
$500
$300
$200
$100
두 박스 구입시 한 박스 공짜!!!
(선착순 Only)

최상급 명품 생산삼 세일(선착순) ~~$2500~~ → $1500

상담 문의 213 382 9191 | 562 400 0072
7342 Orangethorpe Ave. #A-102
Buena Park, CA 90621
천종 산삼원 정성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올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 찜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열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퀸 $379~~
트윈 $229 |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퀸 $419~~
트윈 $299 | 퀸 $369

편리한 쇼파용 온열매트
~~$129~~
$79

www.ilwoulusa.com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695,000

Costco 동네

1Day Contract

독점 2019년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Fredericksburg $395,900

새단지, 방3, 화장실3½

독점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19,900

End Unit, 세탁기·건조기 있음, Costco 가까움

SOLD

독점 리모델한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95,000

방2, 화장실2, Costco 건너편

SOLD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